

Vol.86 2024. 05

FMB Missio De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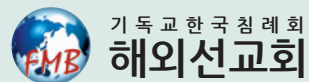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특집 : 이스라엘, 중동의 선교
FMB, SRDC, WMTC 선교저널

Missio Dei
Vol.86 2024. 05



- + Missio Dei는 라틴어로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 + Missio Dei는 FMB와 FMB 산하기관인 SRDC, WMTC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통합 선교 저널입니다
- + 침례교해외선교회(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FMB)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당대에 주님이 다시오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미전도 종족에게 찾아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움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 지역을 복음화하고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 발행인 | 주민호 • 발행처 | 침례교해외선교회(FMB) • 발행일 2024년 5월 24일 • 홈페이지 www.fmb.or.kr
 • 주 소 | 0723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6번길 10, 기독교한국침례회 총회빌딩 12층
 • 연락처 | Tel. 02-2619-2202-4 Fax. 02-2619-8797 E-mail. fmbkorea@fmb.or.kr



Contents



- 제목 : 베들레헴 교회 예배
- Photographer : 원두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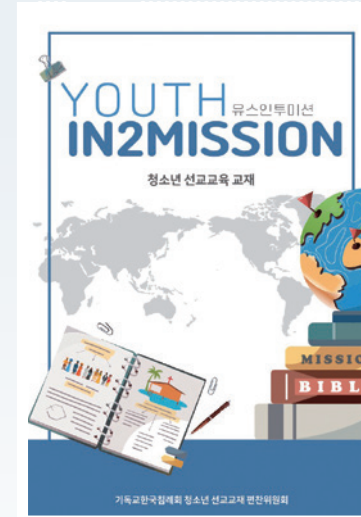
Missio Dei 표지를 장식할 생생한 선교 현장 사진을 보내주세요.(인물, 풍경, 사역 등)

* 파일명을 '이름-사진제목'으로 변환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MB Missio Dei

머리글	03
이스라엘 전쟁과 선교	04
중동 정세와 선교	10
FMB파송 여성선교사 대회	22
여성선교사의 리더십	26
2024 MK 사역의 변화와 열매들	36
WMTC 30주년 기념예배	42
FMB 카이로전략회의	44
청소년 선교교육 교재 발간	50
2024 글로벌 샌더스 포럼	52
5기 디아스포라 훈련 소감문	60
사진으로 보는 5기 디아스포라 훈련	66
34기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68
34기 선교사 훈련 소감문	77
사진으로 보는 34기 장단기선교사 훈련	80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82
인턴선교사 훈련 소감문	84
FMB 은퇴선교사 소개	86
선교사 이야기	88
기관별 사역 일정(FMB, SRDC, WMTC)	96
in2mission 안내	98

청소년 인투미션 교재 발간



목적 | 한국교회 다음세대 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선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함

대상 | 청소년(중·고등학생)

용도 | 교회 수련회, 교회 혹은 학교 선교주간, 단기선교 훈련프로그램, 공과교재, 학교 선교 수업 등

특징

- 1) 12과로 구성되어 필요한 과를 선택하여 학습 가능
- 2) 침례교해외선교회에서 제공하는 선교 최신 자료 사용
- 3) 각 과별로 3가지 이상의 학생 활동자료를 수록해 활동적인 교육이 가능



• 본 교재는 기독교한국침례회 청소년 선교교재 편찬위원회에서 제작했습니다.
• 가격은 2만원(교사용 바인더)이며, 문의 및 구매는 세계선교훈련원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042-828-3371, wmtc94@gmail.com

[FMB, SRDC, WMTC는 재정이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행복한 동행 - 후원의 종류

- 재정후원 : 각 기관들의 사역을 위한 일반 후원과 선교사들을 위한 특별 헌금
- 중보기도 : 분기별로 소식지를 활용하여 기관들과 선교사들을 기도로 지원
- 재능기부 : 기타 행정 지원 및 MK 교육, 돌봄지원

📍 행복한 동행 - 재정후원방법

- 각 단체별 후원 계좌를 통해 직접 일시 후원, 정기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침례교해외선교회 : 256-890033-76504 (하나은행,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
- 선교전략연구개발원 : 990-007953-940 (하나은행, 기독교한(선교전략))
- 세계선교훈련원 : 461301-04-598321 (국민은행, 세계선교훈련원)

세계선교훈련원 30주년을 맞이하며

김중식 목사 (WMTC 원장)



세계선교훈련원이 개원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월 2일에 드린 기념 예배에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선교 훈련원의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해 주신 분들을 다시 보게 되었고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먼저 선교사 훈련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해 주신 많은 분, 그리고 기도 가운데 훈련원을 준비하시고 개원하여 초석을 놓아주신 이현모 교수님, 이어서 교수 사역을 하시면서 훈련원 원장으로 훈련원이 자리를 잡아가도록 헌신해 주신 안희열 교수님과 최원진 교수님 또 해외선교회 이사로 훈련원장을 맡아 수고해 주신 유관재 목사님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기에 침례교단 선교훈련원이 시작되었고 이제 어느 교단에도 부끄럽지 않은 훈련원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선교의 지형이 많이 변해서 이제 나가는 선교사보다 들어오는 선교사가 훨씬 많아졌습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훈련원도 본부와 소통하면서 선교사님들의 필요에 맞게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한국 교회에 더 많아지고 있는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긍휼을 베푸시고 부흥을 주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침례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함께 하는 FMB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재석 선교사 (FMB/이스라엘)

글을 쓰고 있는 시점(2024년 4월 26일)을 기준으로 이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는 전쟁은 203일 차를 맞고 있다.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무장대원 3천여명이 이스라엘 가자지구 근처에 위치한 유대인 정착촌 여러 곳을 침투해 1천 200여명의 무고한 생명을 학살하고 240여명의 인질을 가자지구로 끌고 가면서 이번 전쟁이 시작됐다. 이후 가자지구로 끌려간 인질 가운데 100여명은 지난해 11월 임시 휴전 기간에 풀려 났지만 아직도 남은 133여명의 인질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이스라엘 사회는 매일같이 인질들의 무사 귀환을 위해 가족들과 시민들이 연대하여 다양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상당수(최소 36명)의 인질들이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는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연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교전이 진행되는 가운데 가자지구에도 수많은 희생자(사망자, 3만 4000명 이상)가 발생했으며 가자지구의 기반시설의 상당수가 파괴되었고 이로 인한 피난민도 150만명 이상에 이르고 있다. 마스크를 통해 가자지구 안을 들여다 보는 것과 전해지는 소식 만으로도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 수 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확산 되어 주변 아랍국가들 특히 이란의 대리 세력으로서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레바논의 헤즈볼라(Hezbollah)와 시리아에 위치한 이란의 이슬람 혁명수비대(IRGC)와의 북부전선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남쪽으로는 예멘 후티(Houthis)와의 전선으로도 확대되어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는 지난 몇

주 사이에 이란과의 직접적인 대립과 충돌까지 일어난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때 보다 중동 전체로의 확산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하마스 측에서는 이번 전쟁을 ‘알 아크사의 홍수(Al-Aqsa Deluge)’ 작전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철검(iron swords)’이라는 작전명으로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쟁 발생의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과 주장이 있지만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하마스의 작전명이 시사하듯 지난 5월 이스라엘 극우 정치인들이 사원 경내에 기습적으로 들어가 기도한 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다. 또 다른 분석 가운데 비중 있게 차지하고 있는 가능성으로는 이스라엘에 대한 적대 세력으로서 하마스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에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과 다툼 더 나아가 전쟁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뿌리 깊은 대립과 갈등의 역사이며 정치, 종교 그리고 민족 간에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자리하고 있다. 어쩌면 이 갈등과 싸움은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사람으로서는 해결하기 힘든 복잡하고 다양한 서사가 오랜 기간 두 민족이 함께 살아오면서 상처와 아픔으로 얼룩진 흔적으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하며 꿈꾸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가능한 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을 일컬어 ‘메시아닉 주’(Messianic Jew) 라고 한다. 이 ‘메시아닉 주’와 아랍 그리스도인들 특히 리더십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서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안아주며 서로의 발을 씻긴다.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놀라운 일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가능한 일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복음 안에서 두 민족은 증오와 분노의 대상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며 또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케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 여기에 소망이 있고 그래서 기대하며 더디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 특히 6.25 전쟁 이후 세대들에게 전쟁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다. 흔히들 말하는 ‘중동의 화약고’이며 일상이 전시(戰時) 혹은 준 전시 상태가 연속인 나라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서사이며 고대로부터 중세,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이 이 땅의 역사와 더불어 있어왔다.

1948년 5월 14일,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떠돌며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민족 국가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제1차 중동전쟁을 시작으로 이번 하마스의 전쟁까지 크고 작은 전쟁이 17차례 이어졌다. 올해로 이스라엘 건국 76주년을 맞게 된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 4년에 한번 꼴로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인(정재석 선교사)의 경우 이번 전쟁은 현장에 살면서(2022-2003, 2011-현재), 직간접적으로 네 번째 경험하게 되는 전쟁이다. 그동안 경험했던 전쟁 가운데 이번 전쟁은 그 어느때 보다 길고 또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혹 이번 전쟁이 제 5차 중동전쟁으로 확전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전 세계인의 우려가 어찌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존립해 있는 이상 단순히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이 다가 아니라 주변 아랍국가들 더 나아가 전세계 무슬림과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충돌이 언제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긴장감은 늘 감돌고 있다. 지나온 역사와 현재의 상황이 보여주듯 언제 어떻게 또 다시 일어날지 모를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평화로운 공존 보다 스스로 강해지고 또 싸워 이기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 사회의 지탄, 더 나아가 반유대주의(Antisemitism) 운동이 확산 되더라도 스스로 살아남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와 비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여론도 현 시점에서는 부정적이다.

사역자로서 그런 이스라엘의 입장과 논리를 지지하거나 동조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장에서 13년 동안 살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든 이해해 보려는 노력과 더불어 동정하는 마음으로 서 있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되기도 하고 또 이해되는 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옳고 그름의 문제를 떠나 그들의 단단함과 고집스러움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더 미움을 받았고 또 외면 받아왔는지도 모르겠다.

주의사항

이 땅의 진정한 평화 그리고 회복의 날을 꿈꾼다. 언제쯤 그날이 올까? 살며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바람과 기대는 역사 속에서 늘 있어왔다. 한 예로 예수님이 부활

하신 후 하늘로 승천하시던 날 감람산에 모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쭙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니이까 하니” (행 1:6)

그리고 주님이 그들에게 답하셨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행 1:7-8)

이 말은 자칫 동문서답(東問西答)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우문현답(愚問賢答)이다. 우리에게 그날에 대한 관심과 궁금함이 있음을 모르시지 않으나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며 우리가 집중해야 할 일도 아니라는 것이다. 그보다는 지금 우리가 무엇에 더 힘을 쏟아야 하는지를 지적하신 것이다. 시선의 방향을 하늘이 아닌 땅으로...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그것을 통해 완성될 주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을 이웃들과 동료들과 연약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과 더불어 이뤄가라는 명령인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 집중하고 땀 흘려 수고해야 할 일은 보여지는 현상에 대한 해석과 의미부여 보다 앞서 깨어 기도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번 전쟁을 바라보고 있는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다양한 해석과 입장이 있다는 것을 안다. 그 가운데 소위 세대주의 종말론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하는 이들은 주님 다시 오심과 관련하여 마지막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음에 따라 나타나게 될 하나의 현상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그리하여 이 전쟁을 육의 전쟁을 넘어 영적 전쟁으로, 빛과 어둠의 대결 혹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의 아들들 간의 싸움으로 이해하고 있는 듯하다. 악의 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대항하는 자들은 마땅히 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너무 선을 많이 넘은 듯하다. 이스라엘 나라 회복에 대한 염원과 유대인을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아랍 무슬림들에게는 차별된 시선과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오랜 세월 증오하고 폄박했던 결과로 오늘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있어 그들이 받은 상처와 과거에 대한 기억은 복음 전도의 커다란 걸림돌이 되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다가서지 않고 ‘십자군의 정신’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 있겠는가? 역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때로 우리가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자리할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성경 해석은 늘 구속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그분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의 서사는 성경 곳곳에서 차별이 없고 변하지 않는 명제로 나타나 있다. 그것이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 안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롬 10:12)

그 내용을 대상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구분 짓는 것은 복음의 진정성을 왜곡하는 것이다. 그러한 점에서 일부 극단적 세대주의자들, 프로 이스라엘 혹은 기독교 시오니스트(Christian Zionist)들이 범하는 오류를 한국 교회가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필요와 요청

우리나라에서 신체 건강한 남자들은 군복무가 의무이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이다. 대한민국과의 차이점은 남녀 모두가 군대에 가야 하며 남자는 3년, 여자는 2년 간의 군복무가 의무이다. 또한 제대 이후 예비군 소집은 남자는 만 45세, 여자는 만 35세가 우리와의 큰 차이점이다.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이스라엘은 전시 혹은 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 이후에라도 언제고 다시 예비군으로 소집되면 즉시 전쟁터에 나가야 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

이번 가자지구 전쟁이 발생했을 때에도 예비군 36만 명이 동원되어 현장에 배치되었으며 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숫자가 전장의 중심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과 예비군에게 전쟁 상황은 모두에게 직면해 있는 커다란 이슈이라 할 수 있다. 이것

은 전장에 나가 있는 당사자는 물론 그들을 떠나 보내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거부할 수 없는 숙명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현역과 예비군의 범위 안에 놓여 있는 이들을 위한 보다 실제적인 선교적 접근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며 그 주변을 위한 돌봄 사역 역시 이스라엘 선교에 있어 매우 실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아픔 그리고 내면의 갈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에서의 군복무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이게 되는 실제이며 때로는 살기 위해 누군가를 죽여야 하고 또 때로는 동료의 죽음을 가까이에서 부지중에 목격해야 하는 일이다. 그로 인해 겪게 되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전후 트라우마(Trauma)는 단 시일 내에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상처로 자리하고 있다.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 땅의 젊은이들은 제대 후 장기간의 해외 여행을 떠나거나 뉴에이지 혹은 동양의 신비주의에 심취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상적인 치료가 아닌 마약류에 의존하기도 한다. 이는 사회적 돌봄의 영역은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이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로 남아 있다.

당면한 사회의 문제를 인식한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고 군대 입대 전과 군복무 기간 중 그리고 제대 이후 청년들을 돌보고 상담하고 또 신앙으로 무장하는 훈련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땅의 젊은이들의 고민과 갈등의 지점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은 품으며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 한 걸은 더 나아가 다른 것으로가 아닌 받은 상처와 아픔을 신앙으로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 땅의 교회들과 선교단체들이 감당하고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하고 또 필요한 일로 여기며 더 많은 필요를 만나게 된다. 전쟁이 휩쓸고 간 삶의 자리 한 켠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보낸 유가족들에게 남아 있을 슬픔과 아픔 그리고 그것으로 야기된 고통의 자리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돕는 일 역시 필요한 일이다. 군인들 못지 않게 남은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위해 돕고 섬기는 일은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다. 그런 점에서 남은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위로하고 세심하게 섬길 수 있는 다양한 사역들이 요청되며 더불어 함께 수고하며 섬길 수 있는 발걸음과 손길이 필요한 때이다. 이 땅에는 그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사 40:1)



중동의 정세와 선교



원두우 선교사 (FMB/이스라엘, 팔레스타인)

I. 들어가는 말

성경에서 정치와 종교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국가와 국민을 규정하고 통합한다. 정치는 선거 민주주의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발전하고 있으며, 선교는 신뢰와 헌신을 부정하는 다원주의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심하게 치고 있다.

선교는 난관에 봉착했다. 이를 극복하는 방법은 타문화에서 신뢰와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 선교사를 배출하고, 정세를 분별하는 현지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 중동정세의 지형도를 그려보고 변화의 시대에 적절한 실천계획을 도출하려고 한다.

II. 선교의 난관

1. 중동선교를 이해하는 선교사 배출

교회가 세속화되어도 하나님의 선교는 축소되지 않는다. 중동을 복음화하기 위해 선교사는 지속적으로 파송되어야 한다. 현장은 중동 아랍인들과 관련된 특정 주제에 능통하고, 교회의 영적자원에 의존하여 선교에 매진하며, 중동의 부족사회 본능을 일깨울 수 있는 선교사를 고대하고 있다. 중동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중동선교의 특성을 파악해야 한다.

첫째, 중동은 동서양의 교차로이다. 미국의 중동 출구전략인 인도태평양전략으로 중동에서 신뢰를 잃은 후에, 오히려 K방산은 UAE에 이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중동혼풍’을 일으켰다. 이스라엘 주재 한국대사였던 분에 따르면, 방산산업은 대외정책의 꽃이다.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중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지사 아닌가. 이제는 북한 그리스도인들이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란 등의 중동에 근로자로 나간다.¹⁾

둘째, 중동은 대부분 이슬람국가이다. 영국과 프랑스는 교회, 학교, 병원을 세웠지만 선교는 제국주의 도구로 전락했다. 특이하게도 유일하게 스페인에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가 공존했던 중세의 시기가 있었다. 레이먼드 룰(Raymond Lull)은 스페인에서 튀니지로 갔다. 그는 로마천주교의 집단개종이 아니라 개인 회심선교를 추구했다. 또한 투옥 끝에 결국은 1315년 81세에 돌에 맞아 순교했다. 역사의 전진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이 두려워서 피한다면 이룰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런데 역사의 주인공이 되려는 세력은 약자들을 주저없이 밟았다. 누가복음 4:14~30의 예수님의 나사렛 취임설교는 하나님 나라확장의 본질이다.

셋째, 중동은 부족사회 성격이 강하다. 아랍어를 사용하는 무슬림들이 혈연단위로 생활한다. 일부다처제이며 담배와 커피를 즐긴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가족과 공동체를 배반하는 것이다. 부족의 소속감을 잃어버리고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게된다. 무슬림 사회로부터 분리된 집단이 되고만다. 그런데 개종자를 빼내서 교회의 일원으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될까? ‘여호수아 프로젝트’는 대표적인 중동과 아시아 미전도 종족정탐프로젝트이다. 또한 도널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사회집단을 간파하고 동질 집단 회심운동연구에 집중했다. 선교사는 특정 부족사회에서 생활하며 토착교회를 개척해야 한다.

2. 현지 지도자 양성

1) 현지 지도자 양성의 중요성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이다. 그래서 회심과 순종을 요구하는 복음이 낯선 것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선교사는 초기의 개척단계가 지나면 현지 지도자에게 협력과 이양을 하게된다. 협력단계에 이르면 선교사는 아류(minor version)로서 현지 지도자의 견해를 주류(major version)로 존중해야 한다. 1974년 시작된 로잔언약으로 현지 지도자, 토착교회, 자신화 등의 논쟁점이 선교적 이슈로 떠올랐다. 따라서 현지 지도자 양성은 다음과 같은 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된다

1) Ralph Winter, 『퍼스펙티브스』(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현모외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0), 442.

첫째, 현지지도자와의 협력이다. 어느 특정한 언어와 문화, 종교와 정치의 문화분지(cultural basin)에 올라선 선교사는 현지인들을 부모처럼 돌보게 된다. 현지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데 지도력 개발이 쉽지가 않다. 선교사의 기대가 높거나 지역의 수준이 낮아서일 수도 있다. 교회는 사회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생산하는 산실이어야 한다.

선교사는 어두운 세력을 몰아내는 일차적인 권위가 현지 지도자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촉매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현지지도자들이 변화의 주역이 되어야 선교는 지속될 수 있다. 선교사는 현지 지도자들의 권위를 진심으로 존중해야 한다.

둘째, 토착교회에 책임을 이양해야 한다. 선교사가 들고 온 복음의 씨앗은 고유의 토양에서 토착교회를 탄생시킨다. 이런 토착교회는 지역사회 전체에 놀라운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사회를 변혁시킨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었다. 생명력이 강한 교회는 자녀교회를 생산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았다.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증손녀 교회 증식에 힘썼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도자가 리더로 선정되었다. 이런 토착교회의 재생산은 자발적 배가 운동으로 커다란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

셋째, 자신화이다. 서구의 철학적인 신학교육이 아니라 순종을 가르치는 현지의 신학교훈련이 필요하다. 중동에는 신학연장교육 TEE(Theological Education by Extension)가 대표적이다. 이렇게 배출된 현지 목회자들은 토착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 이론을 수용하지 않는 한 팔레스타인 지역의 갈등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중동의 도시에는 영적 중심이 되려는 교회들이 있다.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대표적인 곳이다. 상실된 공동체 신앙정신을 회복하려는 전통교회의 노력은 역부족이다. 선교적인 혁신은 제3의 공간을 만들며 도시교회의 새로운 얼굴을 만들고 있다. 아랍인들은 개인주의로 상실된 인간성과 친밀감을 회복하기 위해 서로에게 다가서려는 근접작용(proximity)이 활발하다.

2) 주님의 비전

선교사와 현지 지도자의 모든 노력과 선교사역들(missions)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하는 혁신적 목적에 맞춰져야 한다. 선교적인 책을 가까이하는 사람들은 문화장벽과 집단협곡을 넘어간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으며 합리적으로 축소되지 않고 성경적 관점을 갖추게 된다. 원독자 정경의 구조(form), 메시지(message), 배경(background)을 파악하고 성경을 속독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실천해야 한다. 오해와 편견에서 벗어나는 길



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첫째, 문자주의(biblicism)에서 깨어나야 한다. 문자주의는 구조를 간과하고 본문에 집중하게 된다. 마태복음은 모세오경처럼 다섯 개 묶음의 말씀으로 구성되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게 해준다. 성경적인 관점을 갖추게 된다.

둘째,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구조주의(structuralism)는 문학적 특징은 고려하지만 원독자들이 경험한 복음을 놓칠 수 있다. 성령께서는 산상수훈의 하나님 나라 윤리를 실천하도록 능력을 준다. 겸손히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

셋째, 제자들처럼 살아가야 한다. 성서의 조연들은 주인공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을 제대로 보게되면 부러워만하지 않고 제자들처럼 살아가게 된다.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게 된다.

III. 중동정세 변화

SWOT분석은 기업에 주어진 기회를 분석하는 경영전략 분석방법이다. 다변화된 환경은 통합적인 분석방법을 요구한다. 이런 시대적 필요에 부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들 중

하나가 PEST분석(혹은 STEP)이다. 켈브리지 비즈니스 영어사전의 정의에 의하면, PEST 분석은 정치(Politic), 경제(Economy), 사회(Social) 및 기술(Technology)분석으로 외부로부터의 사건이나 영향이 회사 또는 조직의 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조사하는 관리방법이다. PEST분석 방법을 적용해서 중동변화의 형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변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대담한 침공으로 이스라엘의 “the campaign between the wars”라 불리는 전략 독트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적대국을 강하게 압박하여 전쟁을 억제하는 전략이다. 지금 이스라엘과 중동정세는 다음과 같이 혼돈스럽다.

첫째, 이스라엘은 ‘가자지구를 누가 통치할 것인가?’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샤론 전 총리가 가자를 이양한 이후로, 이스라엘은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가자 지구의 하마스의 분열정책을 유지해왔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탄야후의 지도력과 극우내각으로 사회분열이 심화되었다. 베잘엘 스모트리히(Bezalel Smotrich) 재무장관은 크네세트 채널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테러조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 ‘자산’에 불과하다. PA는 단지 짐일 뿐이다.”라고 발언했다.²⁾ 그는 종교적 시오니즘을 신봉하는 강경파로 정착촌 문제를 야기한다.

잭슨 국제관계대학원(Jackson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의 중동학 교수인 스티브 사이먼(Steven Simon)에 따르면 ①조속한 전쟁 종결 ②다국적 평화 유지군 파병 ③PA 신임 총리 무함마드 무스타파 내각과의 협력이 최상의 시나리오 같아 보인다.³⁾

둘째, 중동정세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4월 13일 이란은 이스라엘 본토에 광범위한 공격을 퍼부었다. 요르단, 프랑스, 영국,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응하면서 반이란 동맹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은 베냐민 네탄야후와 아야톨라 호메이니와의 협력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란의 사회 정세가 극도로 불안하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심화되고 있다. 2021년에 출범한 보수파 라이시 정권이 이란을 어디로 이끌어 갈지 분간하기 힘들다. 이란 시민들의 단합된 함성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을 전 세계에 잘 들려준다.

셋째, 무역질서가 복잡해졌다. 소련 붕괴 후에 세계는 산업국가와 신흥 경제국으로

2) <https://www.haaretz.com/opinion/2024-02-04/ty-article-opinion/.premium/the-greater-israel-ideology-of-bezalel-smotrich-has-already-lost/0000018d-6fe9-d971-a38f-71bc5910000> Haaretz Newspaper 2024년 2월 4일자

3) HYPERLINK "<https://www.haaretz.com/opinion/2024-02-04/ty-article-opinion/.premium/the-greater-israel-ideology-of-bezalel-smotrich-has-already-lost/0000018d-6fe9-d971-a38f-71bc5910000>"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4/04/16/a-middle-east-scholar-on-israels-escalating-tit-for-tat-with-iran> The Economist 2024년 4월 16일자

구분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정책으로 세계를 이끌어가고 싶어서 실크로드를 부활 시키려고 한다. 중국의 군사력은 날로 현대화되고 있다.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해서 하이파를 통해 유럽에 진출하려던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별칭 MBS)의 야심찬 꿈이 유보되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국방력 강화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동서양을 연결하는 중동의 가교역할은 항상 중요하게 여겨졌다. 중동정세는 전문가들의 예측을 벗어나기 일쑤다. 따라서 정세변화를 받아들이고 정치적 난관을 극복하려는 생각정리와 독립적 판단이 중요하다. 아랍어로 시작된 복음은 아랍어를 사용하는 중동의 모든 지역사회에서 토착교회를 세울 것이다.

2. 경제적 변화

석유와 가스 시장에서 중동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걸프협력회의(GCC) 6개국 중에서 UAE와 사우디 아라비아가 탈석유 바람을 이끌고 있다. 침체된 세계경제에 야심찬 중동의 성장프로젝트가 돋보인다. 중동의 도시얼굴과 경제 생태계가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첫째, UAE는 선도적으로 경제 청사진을 제시한다. 두바이는 경제성장의 중심도시로 성장했다. 정보산업, 의료관광 산업, 농수산업과 스마트 팜, 국방산업 등에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벼 ‘아세미’는 샤르자 사막에 파종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2020년 4월 29일)에 따르면 한국에서보다 수확량이 40%나 많을 전망이다. 식량안보지수 1위를 꿈꾸는 것이 허황된 것만은 아닌 것 같다. 중동의 젊은이들은 두바이에서 살고 싶어한다.

둘째, 사우디아라비아는 야심차게 국가프로젝트를 시도하고 있다. 네옴시티는 오일 고갈을 대비하는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이다. 야심찬 ‘사우디 비전 2030’ 국가프로젝트는 신재생에너지, 의료산업, 방위산업, 엔터테인먼트와 관광을 아우르는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무함마드 빈 살만 알사우드는 중소기업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 한국의 드론 전문기업 ADE가 ‘사우디 비전 2030’의 방위산업 분야 산업자로 선정되었다.

셋째, 시장확대 기회를 잡아라.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PIF)와 소프트뱅크그룹의 합작인 SVF(Softbank Vision Fund)는 세계최대 펀드로 기술·스타트업에 주로 투자한다. 현장 경험으로 판단할 때 SVF는 한국 스타트업들이 중동에 진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넷째, 중동의 관문도시들은 거둬나고 있다. 기술로 자연환경을 극복하는 스마트시티를 설계하고 있다. 중동의 도시얼굴과 경제 생태계 변화는 놀라게 달라져간다. 생활공간과 이동수단이 획기적으로 달라진다.

이집트의 신행정수도 Telosa는 식수와 식량, 이동과 에너지 등 모든 편의를 제공한

다.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 중인 중동의 스마트 시티는 카타르 Lusail, 사우디아라비아 NEOM등이다.

UN, 미국의 설계기업 Oceannix, 덴마크 건축회사 BIG은 환경문제를 극복한 해양 도시(Oceannix City)를 구상했다. 부산은 이런 해양도시를 2030년까지 세우려고 한다.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시대이다.

유럽은 국가주의로 후퇴하고 중동은 '확장된 부족주의'로 향하고 있다. 도시는 공동체와 정체성에 개방환경을 만든다. 정치행정도 달라진다. '글로벌 폴리스'는 국가질서를 대체하는 도시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렇게 산업혁명이 새도시를 출현시켰듯이 4차산업혁명은 글로벌 폴리스의 태동을 촉진시킨다. 한국의 정부, 기업, 교회에 좋은 기회이다.

3. 사회적 변화

메소포타미아는 씨족사회에서 부족국가로 진입하는 고대문명의 발원지였다. 여호수아의 여리고가 이런 부족국가이다. 나일강의 상류와 하류에도 다양한 부족국가들이 생겨났다. 이렇게 이슬람을 믿는 아랍인들이 중동 북아프리카(MENA)에 아랍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담 후세인의 교수형이 집행되던 2006년 12월 30일에 흥분한 동예루살렘의 청년들에게 필자의 두 아들이 구타를 당했다. 후세인은 총살형을 원했지만 미국은 교수형을 집행했다. 이런 사실이 아랍인들의 정서를 자극해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중동의 부족주의 의식은 다른 지역보다 매우 강하다. 자연, 언어, 종교가 주된 요인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대담했지만 실패라고 평가받고 있다.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지만 민주정권 수립에는 실패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은 부족국가 이라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어렵다는 사실은 분명해졌다.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이 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부족의 역할을 완전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판단실수를 인정했다.⁴⁾ 종교분파에 치중하여 이라크 정세를 파악하다보니, 부족사회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미국의 이런 전략적 실수(strategy mistakes)로 이라크에 세워진 시아파 정권은 이란에게는 세력확장의 기회가 되었다. '국가와 종교'보다 '부족과 지역'이 집단 정체성에 더 큰 영향을 준 구체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중동사회는 다음과 같이 변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부족사회가 변하고 있다. 개인주의에서 탈피하여 감정을 공유하려는

4) <https://www.foxnews.com/us/condoleezza-ricediscusses-north-korea-russia-with-bill-hemmer> Fox News 2017년 5월 5일자

새로운 모임이 여기저기에서 생겨나고 있다. 고독한 개인들의 집단본능이 크게 요동치고 있다. 이들은 전통 부족사회에서 벗어나서, 인간본능에 충실한 동질집단을 추구한다. 에이미 추아 교수는 미국의 인종주의가 확장된 '부족주의(extended tribalism)'에서 기인하는 정치적 인종주의인 것을 규명했다.

둘째, 부족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1988년에 미셸 마페졸리는 '부족주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진단한 바 있다. 부족본능 현상은 중동,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갈등과 연합으로 술렁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을 강준만 교수는 '부족국가 대한민국'으로 진단한다.

전통 부족사회에서 신부족 집단으로 거듭나는 중동은 선교적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한국기업이 진출한 곳을 눈여겨보자. KOTRA와 KOICA의 사무소가 있는 도시를 살펴보자. 한국과 협력하는 나라들을 주목하자, 신부족들을 위한 거룩한 공간을 창조하자. SWOT와 PEST(STEP)분석으로 사회문제를 선교적 기회로 활용하자. 종교도시, 관문도시, 글로벌 폴리스에 제 3의 공간을 만들자.

4. 기술적 변화

기술이 혁신을 주도하며 미래사회를 열어가고 있다.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7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초전도체와 블록체인 기술이 2024년에도 메인 이슈로 보도되고 있다. 4차 산업의 핵심기술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기초과학을 발판으로 응용기술은 다음과 같이 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첫째, 기초과학이 중요하다. 시공간에 존재하는 입자는 회전(spin)한다. 스핀은 플랑크 상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플랑크 상수(라틴어 h)는 입자의 에너지와 드브로이 진동수의 비이다.

과냉각(supercooling)수는 섭씨 영하 48도까지 얼지 않는다.⁵⁾ 빙정핵(ice Nuclei)이 없어서이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나 변화가 오면 순식간에 얼기 시작한다. 충분히 차가운 금속격자는 두 개로된 전자쌍을 불러온다. 정수 스핀을 가진 전자쌍들은 저항없이 대량으로 움직이는 초전도체가 된다. 우리는 초전도체 컴퓨터 시대를 코앞에 두고 있다.

둘째, 응용기술로 산업화를 이뤄야 한다. 블록체인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이 만드는 세상에 다음세대는 열광한다. 2010년대부터 블록체인으로 인재와 투자가 몰리고 있다. 책을 읽어도 블록체인과 web3.0이 만들 미래를 상상하기 힘들다.

5) "Emily B. Moore, Valeria Molinero, "Structural transformation in supercooled water controls the crystallization rate of ice" nature (London: nature 2011) 479, 506~508

기업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다양한 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외식과 콘텐츠, 가상화 폐등의 금융, 게임과 스포츠 등 전방위적이다. 과학기술은 생활패턴을 급속히 변화시켰다. 인간의 개입과 조정이 점점 줄어들며 진화하고 있다.

인류는 자연과 사회를 관찰하고 원리를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왔다. 가장 적은 수의 선분으로 이루어진 평면도형인 삼각형은 가장 많은 수학자들의 연구대상이었다. 유클리드는 삼각형의 무게중심인 외심과 내심의 원리를 찾아냈다. 이 원리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아레시보 망원경은 내심의 원리를, 신도시의 공원은 외심의 원리를 활용한 사례이다. 수학에 밝았던 고대 이집트인들은 피라미드를 쌓아 올렸다.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민족마다 역사가 다르게 진행된 것은 각 민족의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 아니라, 환경적 차이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⁶⁾ 자연과 사회 환경의 무게중심을 잡지 못한 인류문명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1750년 산업혁명 이후, 우리는 기대와 염려 속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해 있다. IT전문가이며 선교사인 켄 안(Ken An)은 블록체인을 4차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보았다.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은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있다. SNS가 만든 신부족사회의 문제점을 염려하고 도와주려는 선교사가 필요하다.

IV. 새로운 환경 속의 중동선교

1. 부족주의 시대의 중동선교

분단국가들의 통일은 치밀한 계획보다 급격한 계기로 이루어 졌다. 반대하는 세력이 안팎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념의 정치력을 퇴색시키고, 정체성의 가치기준을 전환시키려는 저항은 거세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회복이 주요 이슈로 떠오른다. 제럴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의 붕괴를 다섯 가지 틀로 관찰하고, 고향 몬테나에 적용해 보았다. 공동체는 고된 노력을 통해서만 들어진다. 2인승 자전거에 탑승할(Tandem Ideas)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현지인과 외부인의 협력, 선교와 ST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al, Political)분석의 상호작용이 촉진될 것이다.

둘째, 과학은 인간을 팍 막힌 지성인으로 전락시키는 면이 있다. 과학의 파괴력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인류의 도덕적 능력이다.⁷⁾ 신부족 집단은 똑똑한 지성인보다 마음이

6) Jared Diamond,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2014), 35.

7) 김기석, 『신학자의 과학산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318

따뜻한 사람을 환영한다. 이들은 중동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다. 바울의 관점으로 선교하려고 애쓴다. 성서의 중심지(epicenter)였던 중동의 기울어져가는 기독교 공동체를 재건하려고 힘쓴다.

2. 영성의 시대의 중동선교

급격하고 비정상적인 변화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인지, 사고, 감정, 관계 패턴의 차이가 너무 다르고, 생활방식과 대인관계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성격장애를 의심해야 한다.

어떤 선교 지도자를 세울까? 기독교적인 교양과 배려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자의식을 가진 사람(person)이라야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를 돌보는 목사(parson)가 될 수 있다. 정밀착륙유도시스템이 고장난 비상사태에서 기장은 수동으로 기체를 착륙시켜야만 한다. 이처럼 위기사회에서 영성에 기반한 판단력을 갖기 위해서 선교사에게 중요한 덕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타종교를 존중하는 ‘기독교 교양인’(christian civility)이다. 영국과 프랑스로부터의 해방 투쟁 때보다 아랍의 봄은 훨씬 더 뜨거웠다. 이 개혁의 바람은 굳게 닫혀있던 정치의 문을 강타했다. 사실 이슬람은 유럽 기독교보다 먼저 과학의 문을 열었다. 지금 중동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갈망한다. 무슬림은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영혼을 기다린다. 전문인과 목회자의 팀선교가 요구된다.

둘째, 사역자는 성서, 성령, 기도의 능력에만 의존하는 ‘능력 대결자’이다. 복음은 이방의 땅인 갈릴리에서 시작되었다. 나사렛 예수님은 신명기로 사탄의 시험을 물리쳤고, 약속하신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보냈으며, 철야기도하며 제자들을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셨다.

사무엘 즈웨머(Samuel Zwemer)는 학생자원운동(SVM)으로 선교에 헌신하고 재정지원이 어렵자 아랍선교회를 조직했다. 1890년에 페르시아만에서 사역을 시작했다. 1906년 카이로 선교사총회에서 의장에 피택되어 17년 동안 사역을 감당했다. <Muslim World> 편집장으로 40년 동안 일했다. 그의 새로운 시각과 선교모델로 ‘무슬림 선교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었다.

3. 전문가의 시대의 중동선교

전문가는 지역문제, 전공분야, 국제관계에서 역량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잘 모르지만 준비하면 되는 것, 경험이 있어서 잘 할수 있는 것, 심지어 포기했던 꿈도 하나님은 사

용하신다. 필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전문가다. 잘 모르지만 준비하면 전문가로 성장한다. 이스라엘 Reichman University에서 주최하는 'Herzliya Conference'에서는 아티클을 발행한다. 2016년 6차대회 아티클 56~57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얻었다.

한 지역에서 만들어진 풍속들이 모여 민속문화가 된다. 이런 문화의 상호작용 속에서 문명은 발전하고 쇠퇴한다. 선교사는 다른 문화를 관찰하고 해석(etic view)하여, 혼합해서는 안될 고리를 끊고, 수용할수 있는 범위와 독특성을 형성(adaptable form) 해간다. 문화 충돌을 이겨낼 수 있는 지역전문가는 기독교 유니폼(내면:소금, 드러남: 빛)을 제작할 수 있다.

제임스 스프래들리(James P. Sparadley)와 같은 도시인류학자들의 책, 미전도종족 정탐 훈련 등이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KOICA에서 헤브론에 건축한 "Korean-Palestine Center"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의 현장관리자로 참여할 수 있었다.

둘째, 모든 분야가 전문적이다. 누구나 배움이나 직장에서 얻은 경험으로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이 쌓였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창·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발굴·기획을 수행할 수 있었다. 기술산업, 스포츠 산업, 관광산업 등은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셋째, 포기했던 꿈이 이루어진다. 모친의 반대로 초등학교 5학년 때 태권도 승단심사를 포기했었다. 승단심사가 주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 태권도 사역자가 없어서 태권도 협회장 미셀을 만났다. 교회명함을 드리고 몇 단인지 물어보았다. 5단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2급이라고 소개하고 왜 5단까지만 했는지 물었다. 대답이 인상적이다. "스승이 5단이셨어요." 그는 태권도의 정신을 간파하고 있었다. 이렇게 태권도 사역이 시작되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태권도인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의 표어처럼, "꿈은 이루어진다."

2002년에 작성한 가족사명선언문이다 "①우리는 한국인으로서 현지인이되어 ②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서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고 ③중동과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고자 한다." 사명의 나침반은 사역방향을 바로잡아 주었다. 그동안 성도들을 돌아보지 못하고(행 7:23), 이웃의 고통을 알라차리지 못했다(히 11:25). 불순물이 제거되어 얼굴이 비추일 때까지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

V. 나가는 말

선교사는 성찰하며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명선언문에 명시된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정체성은 5W로, 사역은 5T로 규정했다. 정체성 5W는 천국시민(wonderer), 예배자(worshipper), 증인(witness), 글쟁이(wordsmith), 파수꾼(watchman)이다. 사역 5T는 성경교사(truth), 교육자(teaching), 태권도인(taekwondo), 기술인(technology), 관광산업전문가(tourism)이다. 또한 멘토가 주는 지혜와 자문을 꾸준히 받으며 실수를 줄여야 한다.

레이먼드(Raymound Lull)는 이슬람선교의 선구자이다. 그는 1232년 유럽 천주교 국가인 스페인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재산과 특권을 포기하고, 기독교인을 가장 중요하는 튀니지 사라센의 회교도 사역에 전념했다. 지금 자스민 혁명의 진앙지로서 개방적인 이슬람 도시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아랍어 공부에 9년이나 전념했다. 비엔나회의에서 유럽의 대학이 아랍어과를 설치하도록 가결시켰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 일본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영감을 받았던 시디부 사이드(Sidi Bou Said)에 가서, 레이먼드는 어거스틴을 본받아 사색하며 시를 짓는 선교사였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웃을 돌보는 것, 다음 세대를 다른 곳으로 보내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사랑의 핵인 교회가 연결되어 완성될 새예루살렘을 고대한다.

참고 문헌

1. 단행본

김기석. 『신학자의 과학산책』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8.

Ralph Winter. 『퍼스펙티브스1』(*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이현모외 역, 서울: 예수전도단, 2010

Jared Diamond. 『총균쇠』(*Guns, Germs, and Steel*), 김진준 역, 서울: 문학사상사, 2014

2. 아티클

"Emily B. Moore. Valeria Molinero. Structural tranformation in supercooled water controls the crystallization rate of ice" nature. London: nature 2011) 479, 506~508."

3. 인터넷 사이트

<https://www.haaretz.com/opinion/2024-02-04/ty-article-opinion/.premium/the-greater-israel-ideology-of-bezalel-smotrich-has-already-lost/0000018d-6fe9-d971-a38f-7fbc5910000> Haaretz Newspaper 2024년 2월 4일자

<https://www.economist.com/by-invitation/2024/04/16/a-middle-east-scholar-on-israels-escalating-tit-for-tat-with-iran> The Economist 2024년 4월 16일자

<https://www.foxnews.com/us/condoleezza-rice-discusses-north-korea-russia-with-bill-hemmer> Fox News 2017년 5월 5일자



〈FMB파송 여성선교사 대회〉를 참석하고



| 광 숙 선교사 (FMB / 일본)

경기도 가평에 있는 필그림하우스의 주변에는 꽃들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곳은 새봄을 맞아 벚꽃과 목련, 노란 개나리, 그리고 알록달록한 철쭉들이 새롭게 물이 오른 연두색 나뭇잎과 어우러지면서 그야말로 한폭의 수채화를 그려 놓은 듯 장관이었다. 평년보다 조금 늦게 핀 벚꽃은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기라도 하듯 목련과 함께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렇듯 필그림하우스의 나무와 꽃들마다 고귀하고 소중한 누군가를 위하여 최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는 사월의 봄이었다.

12시 점심때쯤 되니 큰 트렁크 가방을 끄는 여성분들이 필그림하우스 갈릴리동 현관으로 속속 들어오기 시작했다. 잠시 후에는 큰 버스가 도착하더니 현관은 금세 여성들로 북적 북적 했다. 그녀들은 오랜만에 만난 그리운 이들을 향해 서로 환하게 웃으며 포옹했고, 두 눈은 무엇인가 기대감으로 반짝반짝 빛을 내고 있었다.

그녀들은 넓은 통유리로 된 〈카리타스 채플〉(가평의 아름다운 산 풍경이 한눈에 들어오는)홀에 조별로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홀의 중앙에는 〈제2차 FMB파송 여성사역자대회〉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넓은 예배당에 가득 모인 그녀들은 다름아닌 침례교 해외선교회와 교회의 파송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여성 선교사들이다.

2024년4월9일, FMB 세계여성준비위가 주최하는 〈제2회 FMB파송 여성사역자 대회〉가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테마로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필그림하우스에서 열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방에 파송된 FMB소속 여성 선교사들은 이곳에서 고대하던 치유와 회복과 채움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이번 대회는 2018년 10월의 제1차 대회에 이어 두번째로 갖는 대회로서 오랜 기도와 간절한 소망가운데 코로나이후 6년만에 개최하게 되었다. 올해 2차 대회는 32개국 196민족 가운데 흠어져 사역하는 94명의 여성 선교사들이 참석하였고, 또한 대회를 돕기 위한 60여명의 섬김이들을 포함하여 160여명이나 참석한 큰 대회가 되었다.

3박 4일간의 일정속에서 짜여진 프로그램은 여성선교사들의 타국에서의 외로움, 힘든 사역과 영육의 고단함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에 충분하였다. ‘레비스탕스’ 찬양팀의 뜨겁고 수준 높은 찬양은 우리를 매시간 주님의 임재 앞으로 인도해 주었다. 우리 모두는 찬양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꼈고 피곤한 영혼이 다시 새 힘을 얻는 은혜를 누렸다. 오전과 오후,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자랑스러운 침례교의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이 강사로 나서 힘 있는 말씀을 전해 주셨다. 여러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였고,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이런 진지한 강의 중간 중간에는 여성 선교사님들이 지루하지 않도록 전문 레크레이션 강사에 의한 아이스브레이크를 나누었고, '리테아 앙상블'의 콘서트 시간도 있었다. 황홀한 콘서트를 끝내기가 못내 아쉬웠던 여성 선교사님들은 '앙콜, 앙콜'을 목청껏 외치기도 했다. 그리고 전문 카운슬링 선생님의 강의를 통해 내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들여다 보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셋째 날 오전에는 필그림하우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함께 펼쳐지는 존번연의 [천로역정]의 순례자의 여정을 친절한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걸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여정을 알기 쉽게, 때로는 익살스런 표정의 조형물을 지나면서, 책을 통해서도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의미들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셋째 날 오후에는 이번 대회의 하이라이트인 남이섬 관광이 있었다. 버스로 선착장까지 이동한 뒤, 다시 배를 타고 남이섬까지 들어가 각기 조별로 남이섬의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즐기는 시간이었다.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꽃과 나무들이 보이는 카페 테라스에서 마시는 커피, 걷는 중간 중간에서 터져 나온 숨길 수 없는 재능들과 배꼽을 잡는 농담들, 재미있는 포즈의 사진을 찍기 위해 서로의 어깨를 껴안고 팔짱을 끼며 느꼈던 서로의 체온, 우리들의 마음과 정서를 여고생 시절의 순진함과 충만함으로 바꿔 놓는 새로운 순간이었다.

여성선교사들이 이러한 풍성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침례교의 많은 교회와 단체, 그리고 개인들의 후원과 봉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아름답고 편안한 필그림하우스의 숙소와 차량봉사, 그리고 입장료를 지원해준 지구촌교회의 전적인 지원을 비롯하여 은혜드림교회, 더크로스 교회, 늘사랑 교회, 강남중앙교회, 포항중앙교회, 여의도교회, 디딤돌교회 등의 많은 교회들의 기도와 헌신적인 후원이 있었다. 여성 선교사들이 편안하게 쉬며, 은혜를 누리며, 재충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여성 선교사들을 즐겁게 해주는 것에 있어서 음식과 간식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은둔자'라는 뜻을 가진 '인자식당'에서는 매끼마다 풍성하고 건강한 식사를 제공해 주었다. 그리고 아름다운 교회의 미사채플팀의 간식은 가히 예술품에 가까운 작품으로 그것을 입에 넣는다는 것이 황송할 정도의 맛과 디자인을 가진 걸작이었다.

또한 여성 선교사들에게 호응이 좋았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지구촌교회 의료선교팀에서 베풀어준 '수액주사'였다. 수액주사란 영양부족으로 인한 피로나 면역력 저하, 소모성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간내에 필요한 영양과 치유를 줄 수 있는 링거주사이다.

지구촌교회 의료팀은 각박한 환경에서 많은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에서 자신의 몸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여성선교사들을 위해 비타민 주사, 태반주사, 마늘주사, 와인주사 등의 주사를 제공해 주셨다.

이번 대회는 여성선교사들만을 위한 모임이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선교사가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 더 경제적이고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다. 하지만 여성선교사들은 여러가지 각박한 선교지 현장에서 사역자로, 아내로, 어머니로 다양한 포지션에서 사역을 해오고 있다. 특히 여성의 그 섬세함과 예민함은 남자 선교사님들이 미처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고, 사역 현장에서의 사역을 더 원활하고 풍성하게 해준다. 하지만 그 섬세함과 예민함은 때때로 남자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선교지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감성적 채움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선교사들만의 대회가 필요하다.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가정과 교회를 섬겨왔던 몸은 쉬을 필요로 하고 있었고, 정서와 문화적 채움을 얻지 못해 고갈된 영혼은 새로운 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때로는 남편 선교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여성선교사들만이 겪는 여러가지 고통에 대해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교제가 절실한 이유이다. 사역의 주체이자 능력이신 하나님은 나를 사역지로 파송하신분이다. 사역의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고갈된 상태였던 우리들이었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의 성과에 따라 나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셨다. 주님은 여성선교사들의 이런 상처와 아픔에 무관심하지 않으신다. 치유하길 원하신다. 하나님은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회복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즐거워하며 사역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여성선교사들만의 대회가 준비되었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채우셨다.

이번 제2차 침례교여성사역자대회를 위해 준비위원들은 각 나라에서 여러 차례의 시차를 견디며 줌회의를 거듭 진행했다. 매월 첫 주 화요일에는 지역섬김이들과 함께 기도시간을 가졌으며, 대회 40일 전부터는 릴레이 금식기도 등을 통한 영적싸움을 하면서 준비하였다.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할 뿐이다. 다음에 열릴 제3차 대회를 위한 제3차준비위원회도 새롭게 결성되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회복된 여성 선교사들은 보냄받은 그곳에서 힘껏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것이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랑으로 보내신 땅에서 복의 통로로 기꺼이 자신의 삶을 헌신할 것이다. 그리고 3년 뒤에 열릴 제3차 대회를 기쁨으로 기대하면서, 주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자신을 예배자로 중보자로 드리며 살 것을 다시 다짐하며 헌신할 것이다. 할렐루야!

여성 선교사의 리더십

권경숙, 김경신, 박현희, 손사라, 양영미, 유성옥 (FMB)

I. 들어가는 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여성 선교사들은 선교와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들의 역할과 참여는 증가하고 있다. 사실 여성 선교사 리더십은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조되는 사회의 시대적 요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러 이유로 연구가 매우 부족했었다. 과거에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이 심각하게 존재했고, 이는 여성 선교사 리더십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환경에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과 기여는 간과되었고, 연구에 대한 관심도 부족했을뿐더러 연구도 부족했었다.

이에 이러한 문제들을 토대로 연구를 진행함에 따라 여성 선교사 리더십을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세우신 여성 선교사들의 리더십을 개발하여 실전에 적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확장과 세계 선교에 긴밀한 동역 관계를 이룰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II. 여성 리더십의 성경적 이해

1. 리더십의 의미

John C. Maxwell은 그의 책 리더십의 법칙에서 “리더십은 추종자를 모을 수 있는 능력

이다”고 말한다. 또한 J.Robert Clinton은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책임감을 느끼고, 특정한 그룹의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다.

이러한 일들을 여성 선교사가 이루게 될 때 여성 선교사 리더십이라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여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성 리더십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

리더십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여성의 리더십은 사랑과 따뜻함이 기본이 되는 섬김의 리더십이다. 잠 31:31: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잠언 31장의 여인은 한 가정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보여 주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일 자리를 잘 배치하고 그들을 잘 돕는 것을 통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준다. 현숙한 여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로 가족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사업을 경영하여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그 일을 위해 밤에 불을 끄지 않고 일하는 부지런히 일하는 여인이다. 현숙한 여인은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에도 영향을 주는 아름다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현숙한 여인의 리더십 즉 여인의 섬김을 통해 잠언 31:23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라고, 기록되어 있다. 현실에서 훌륭한 여성 리더십을 통해 남편이 인정받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사람들을 설득하여 움직이게 만드는 힘을 리더십이라면 그 리더십의 핵심은 ‘권위’이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authority)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찌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8-20). 이 명령에는 성별이나 사명을 수행할 때 역사하는 권위(authority)에 성별의 차이가 없다.

우리는 완벽하지 못하고 문화, 언어가 다른 다양한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더욱 유능한 리더가 될 필요가 있다. 성경에 수많은 지도자는 각자의 특징들로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특별히 성경 속에서 여성들은 어떤 공헌을 했는지에 대해 집중해서 살펴봄으로써 좋은 리더가 되는 것에 대해 배우고자 한다.

2. 성경에서의 리더십 이해와 예

1) 한나

사사 시대는 어두운 시절이었고 이스라엘의 암흑기였는데, 그 어두운 시절에 한나는 가장 빛나는 리더를 키워낸 어머니였다. 그의 리더십에 몇 가지에 집중해 보면,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여건 속에 있었다. 다른 여성을 데려와 아이를 낳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던 그런 사회 속에 살았기 때문에 남편이 브닌나라고 하는 다른 여성을 데리고 왔고 그 여인이 아이를 낳고 나서 한나를 멸시한다. 그런데 남편은 한나를 더 사랑했다. 그런데도 한나는 남편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했다.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영적 방향을 어떻게 갖게 되었을까?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고, 주시면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다.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이 정도의 영성을 가진 한나가 분별력 없는 엘리에게 바치고 싶었을까? 자녀 교육을 생각하면 엘리에게 보내지 않아야 한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놓으면서, 그러나 한나는 굉장한 실천력을 갖고 있었다. 그 낳은 아들을 젖 떼고 나서 바로 거기로 보냈고, 약속하고 마음에 정한 대로 실행했다. 그렇다고 사무엘을 보낸 후 될 대로 되라고 하지 않았다. 그 시대 빛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엘리 제사장 때문이 아니라 일 년에 한 차례 성전에 올라가는 한나 때문이었다. 일 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364일을 준비한 것의 총집결로서의 방문, 그 몇 날을 위해 숨을 가져다 아이의 옷을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그 아이를 향한 기도와 어머니의 모든 정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한나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도 노력으로 사무엘이 탄생한 것이다. 특히 선교사역에서 자신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지속 할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보는 것이 리더에게 중요하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과, 자녀를 잘 성장하도록 지속성을 갖고 돕는 리더였다. 선교 현장이 힘들더라도 이런 자세로 굳건히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2) 에스더

불안정한 시기엔 위대한 리더가 요청된다. 에스더는 자기 민족을 말살시키려는 계획이 세워지고 또한 법적으로 그것이 승인되었을 때 그 시대의 도전에 맞서 일어나 그 죄악을 계획한 사람을 패배시키고 멸망할 위기에 빠졌던 자기 민족을 구해 내고, 파멸 직전에 있던 일개 여인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 에스더는 좋은 멘토가 있어서 좋았다. 모르드개 같은 지원군이 있었으니 말이다. 에스더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들로부터 멀어져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태어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의 포로 생활 끝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긴 했지만, 대다수는 포로 지에 남아 있었다. 일부는 지역의 소중한 일원으로 환영

을 받았으나, 멸시를 당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에스더의 가족은 바사에 남기로 했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곳이야말로 그녀가 꼭 있어야 할 곳이었다. 사람이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다. 에스더를 보라 그녀가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유다 백성들이 어찌 되었겠는가? 우연이 없는 것 같다. 에스더는 왕비가 된 후에도 겸손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모르드개의 조언을 기꺼이 받아들였다. 원래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분부에 따라 자신의 배경, 곧 유대인의 포로라는 사실을 왕에게 함구했다. 하지만 하만이 유대인 학살을 계획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그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누군가 즉시 나서야 하며, 그 일에 에스더가 책임자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에 4:14-16 이 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놓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하여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는 리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적당한 때에 적당한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면 반드시 승리가 따라온다는 진리를 깨달았다. 리더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향해 첫발을 내디딜 용기가 필요하다. 에스더는 위기 속에서 급하게 행동하지 않고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음으로써 이 위기를 대처해 나갔다. 적절한 시기가 되자 유대인들의 목숨을 보전할 권세를 갖고 있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직접 호소했다. 이 문제의 진원지가 하만임을 밝혀 그를 바로 처리할 수 있게 했다. 에스더는 모르드개와 이 위기가 해결되었음을 왕국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조서를 풀어냈다. 이들의 계획은 유대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장차 있을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한 규례를 마련하여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함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어 잔치를 베풀고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했다. 모르드개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하고 유대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되었다(부림절이 시작됨. 에 9:20-22). 여기서 여성 지도자 에스더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위치를 사용하되 겸손함과 분별력을 잃지 않고, 생명을 내놓고 기도했던, 위기에서 나라를 건진 지도자였다.

3) 드보라

사사기 4장에서 이스라엘 사사 에훤이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고 그의 군대 장관은 시스라였다. 이 당시에

랍바돏의 아내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다. 그녀는 이스라엘에서 재판 을 맡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다. 하나님은 바락에게 야빈의 군대 장관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다. 바락은 드보라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고 한다. 드보라는 자기가 함께 갈 것이나 바락은 영광을 얻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 당시 가나안 땅 에는 철기문화가 발달하여 그들은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 이를 안 바락은 용기를 잃 어 혼자 가기 두려워했던 것 같다. 시스라가 모든 철병거와 사람들을 모아 기혼강에 모였 을 때 드보라가 바락에게 외친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나?” 하니 바락이 만 명을 데리고 바불 산 으로 내려간다.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돈에 빠지게 하셔서 시스라가 도주한다. 시스라의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 다. 시스라는 헤벨의 집에 도착하여 그의 아내 야벨의 손에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하나님 은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시키신다. 힘도 없고 군대훈련도 받지 않 은 여인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인도했으며 무기도 없이 열악한 상황 속에서 철병 거를 갖 춘 전쟁에 완승했을까? 그녀의 용맹스러운 지도력 때문이다. 그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 고 믿고 순종하는 자였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자였다. 오늘날 여성선교사도 여 선지자 드보라의 지도력을 충분히 갖추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겁 많은 바락은 말씀대로 영광을 받 지 못했지만, 여성이라도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음을 증명했 다. 모든 리더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 일을 이루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더 좋은 도구와 방법들을 찾고 있다. 더 좋은 프로그램과 방법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리 더를 찾고 계신다. 여성 선교사들이 그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III. 여성 선교사 대한 인터뷰 사례 제시

실제 여성 선교사들의 역할과 리더십의 사례를 보기 위해 현장의 경험이 있는 10명의 다 양한 여성 선교사들을 만나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한 도표로 정리하였다.

1. 인터뷰 질문들

- 1) 여성 선교사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 2) 사역 현장에서 여성 선교사로서 하신 역할은 무엇인가요?

2. 도표로 사례 정리

사역했던 지역	선교 경력	이미지	역할들
중국, 말레이시아	30년	부드러움, 공감능력, 조력자, 비서, 전천후	음식 만들기, 성경공부, 소그룹 인도, 멤버케어, 상담, 마더와이즈, 한국어 교사, 드림문화센터 운영, 설교, 재정관리
카자흐스탄	2년	강인함, 따뜻함	남편이 보지 못한 부분들, 교회에 세부적인 필요들 (위생, 환경정리등, 음식 만들기 등) 여성들과 상담, 세심한 손길(데코)
중국, WMTC	17년	강인함, 안쓰러움	음식 섬김, 멤버케어, 상담, 가정사역에 관련된 교육 (자녀교육, 부부등), 제자훈련, 목양, 설교
카자흐스탄, 인도	25년	터미네이터의 여성 버전	성경 공부, 주일학교 설교, 식사준비, 아이들과 놀기, 교회 셀모임 아이 돌보기, 행정사역, 신학교 컴퓨터 강의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24년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	가정케어, 가정현지인 교회 음식 섬김, 제자 양육, 찬양 인도, 마더와이즈 리더, 한국어 교육, 한인 여성 모임 준비위원
키르기스스탄	31년	하나님을 경외함, 현숙한 여인 이미지	남편 선교사를 돕는 사역, 현지인 재정 컨설팅, 중보기도, 한국어 사역을 통해 전도, 제자양육, 음식으로 섬김, 카페 사역, 지부장
카자흐스탄	30년	여성 선교사는 아내, 엄마, 사모, 사역자,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 부드럽고 강하며 온유하고 지혜로움,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	교회 : 상담, 설교, 기도, 인도와 기도 훈련, 강의, 카작민족 대상 사역 신학교 : 그룹 모임 인도, 기도훈련, 강의, 상담, 강사 의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17년	헌신적이고 용감함, 부드럽고 강함,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잘 듣고 순종	여성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대상으로 사역 할 수 있다.(과부, 고아, 아이들, 여자 싱글, 돌봄사역, 호스트사역, 자녀양육)
루마니아	30년	헌신적이고 용감하다	여성들에게 오해 없이 접근 할 수 있었다. (성경공부 찬양, 기도모임, 개인전도, 상담 개인전도, 식사대접, 심방, 교회데코, 대부분 남성 사역자와 공통된 역할)
말레이시아, SRDC	34년	헌신적, 자유롭게 떠날 수 있고 자유롭게 사역, 결정도 자유로움, 가성비가 적게들, 언어습득이 빠르고 현지인들과 더 빨리 공감될 수 있음	모슬렘 지역에서의 여성 제자훈련, 밥 사역

이상과 같이 현장에서의 여성 선교사 리더십의 스타일은 협력적 리더십, 감성 지향적 리더십, 관계 중심적 리더십 스타일을 말할 수 있겠고, 장점으로는 통합적 사고와 감정 지능 그리고 사회적 능력 등을 꼽을 수 있겠다.

IV. 여성 선교사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제안

여성 리더십의 성경적인 이해와 여성 선교사의 실제 사역 현황을 살펴볼 때, 성경에서 여성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동역자들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남성 선교사 못지않게 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이 시대의 기대에 부응하여 먼저 여성 선교사 스스로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리더십을 개발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선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라 생각한다. 우리는 이제 뿔속까지 스며있는 유교의 관습에서 벗어나서 성경의 원리에 입각한 여성 선교사로서의 자기 계발 및 은사개발을 통해 영혼 구원과 세계 선교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론에 따라 우리는 여성 선교사의 리더십 개발을 위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여성 선교사 리더십의 정체성 확립

여성 선교사의 정체성은 성경에서 말하는 여성의 역할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이해함으로써 여성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다. 여성 선교사는 여성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며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돌봄을 통해 간접적인 선교를 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앞에 서서 선교하는 선교사가 남성 선교사라고 하면 대부분의 여성 선교사는 여성만이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푸쉬케 생명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탁월하게 잘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간접적인 선교 접근이며 결국에는 복음과 연결되는 열매를 얻게 된다. 이 리더십을 통해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가 됨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성경이 말하는 여성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이 말하는 여성 리더십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2. 교육과 훈련

여성 선교사의 리더십을 돕기 위한 교육과 훈련의 구체적인 대안이나 방법으로는, 리더십 워크숍 및 세미나, 멘토링 프로그램, 케이스 스터디, 온라인 리더십, 팀 강화 활동, 도서 추천 및 학습 그룹, 피드백 및 평가, 네트워킹 이벤트 주최...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멘토링의 활성화

선교사공동체 안에 선교사적 연륜으로인해 리더 역할을 하는 여성 선교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며 그들의 연륜과 경험을 자신의 개인적인 역할에 머물지않고 책임의식을 가지고 여성 선교사들의 멘토가 되어줄 필요가 있다.

4. 여성의 특성을 활용하기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창의성과 감수성이 뛰어나며, 대화를 통한 상호작용을 중시한다. 이는 그녀들이 다른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있어 능동적이게 만든다. 또한, 여성들은 다른 사람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격려하는 데에 자연스러운 재능을 가지고 있어, 위기 상황에서 관계 중심의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특별히 잘 적용할 수 있다.

5. 여성선교사들의 전문성개발

여성선교사들의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선교에 대한 통전적 이해를 위한 선교학을 공부하거나 좀 더 전문화된 선교사역을 펼치기위해 적절한 학위를 취득하도록 하는것도 스스로를 향한 만족감과 성취감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6. 정서적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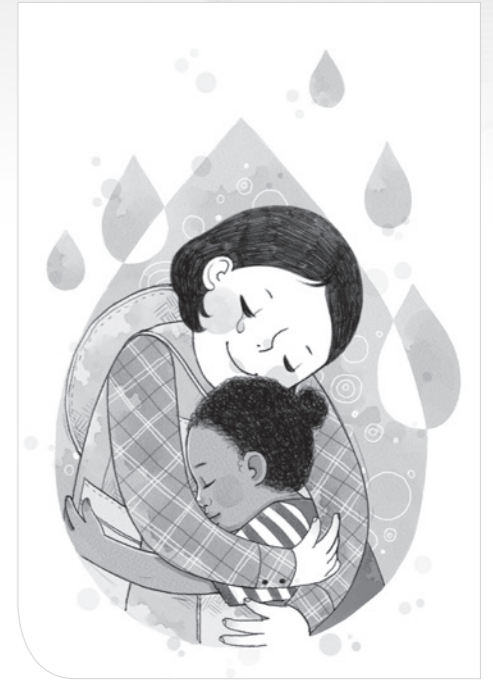
선교활동 중 겪는 가정과 본인과 사역에 대한 스트레스나 감정적 문제를 대응할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적극 참여하여 여성 선교사로서 감정적 또 가정적 사역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전문인들과 관계를 맺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V. 나가는 말

여성 선교사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확신과 지위, 그리고 교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첫째, 자신의 은사에 맞는 독자적인 사역을 발굴해야 하고, 둘째, 평생 학습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즉, 지속적인 자기 개발을 위한 구조 확립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 학위 및 자격증 취득은 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주고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특히 이 부분은 가족과 남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세 번째로, 지역 교회나 파송 선교단체에서 여성 선교사 사역에 대한 공평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 사역자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때에도 그것이 남편 선교사의 사역으로만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 여성 선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며 더 나아가 마음에 병이 되는 경우도 있다. 파송 교회와 선교단체는 선교사의 개인적 노력과 헌신을 올바르게 평가하여, 그들이 배우자나 남성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독립적인 선교사로서 적절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선교지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돕는 자로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거나 자신의 은사를 최대한 발휘해 독자적인 사역을 하는 여성 선교사를 볼 수 있다. 어떤 것이 맞고 틀리다기보다는 그들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일 것이다. 다만 바라는,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어떠한 모습이든 적절히 쓰임받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한다.



참고문헌

- J. 로버트 클린턴. [인생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 이영규(옮김), 베다니, 2016.
- John C. Maxwell. [리더십의 법칙], 강준민(옮김), 비전과 리더십, 1997.
- 박혜원. "여성 리더십의 성경적 이해와 개발", 논문, 2000.
- 존 맥스웰. [성경에서 배운 21분 리더십], 정성목(옮김), 생명의 말씀사, 2007.
- 존 보렉, 대니 로버트, 엘머 타운즈. [리더와 리더십], 디모데, 2005.
- 여성 리더십 포커스 포럼, 2022.

2024 MK 사역의 변화와 열매들



| 문하영 (FMB 간사)

다른 언어와 문화에 익숙한 MK(Missionary Kids)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큼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이주한 MK에 대한 관점은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목회자의 자녀로 자랐지만 MK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MK사역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MK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주목하시는 소중한 한 영혼임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살리기’에 부르심을 받은 저는 순종하는 자세로 두렵고 떨리지만 기대와 설렘의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24 MK 사역의 시작

지금까지는 MK 개개인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역이었다면 2024년도 FMB MK 사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MK를 위하여 전담 간사가 임명되었고, 그간 FMB가 해왔던 사역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보완해 가며 본부와 MK 사역의 방향과 비전을 새롭게 조정하였습니다. FMB 비전 2030 “함께하는 선교”를 기반으로 MK사역 비전 역시 활발한 소통과 지속적이고 재생산하는 네트워킹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2024년 새롭게 단장된 FMB MK사역의 변화와 열매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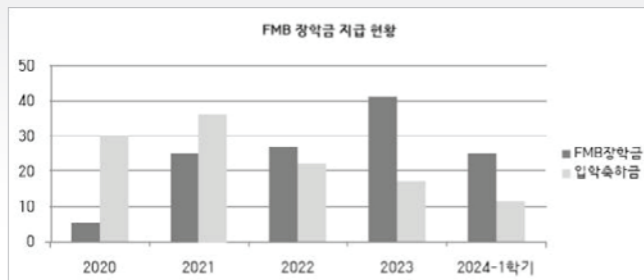
전연령 MK 전수조사 실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앞서 먼저 FMB 소속 MK의 구체적인 정보와 현주소를 파악과 확인의 필요를 느껴 가장 먼저 MK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연령별 교육환경, 주 사용 언어, 한국어 구사 정도, 생활 만족도, 건강/신앙 점검, 기도제목 등 MK 네트워킹을 위해 항목별 세분화된 조사를 하였습니다. 구글폼으로 조사를 하여 전체 708명의 MK 중 482명의 MK의 정보를 수집하고 자료화하였습니다. 처음에는 200명 남짓의 MK의 정보만 수집되었지만 지부장님들의 지속적인 안내와 독려로 현재 약 전체 인원의 70%까지 제출된 것입니다. 전수조사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었던 MK를 본부와 연결되게 하고 부모 선교사로부터 오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정보들이 새로운 MK사역 출발에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2024 상반기 FMB 장학금 지급

FMB에서는 2010년부터 매년 학기마다 대학생 MK를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여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장학금 지급 항목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MK들에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비전이 명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MK에게는 ‘비전 장학금’,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MK에게는 ‘소망 장학금’, 신학교를 재학하며 미래 사역자로 헌신된 MK에게는 ‘헌신 장학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장학금 후원 요청 영상을 제작하여 이사님들은 물론 교





2021. 1. 1. 주민호 회장 취임

역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 장학금을 받은 사례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FMB장학금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은 MK들이 처음으로 후원 교회와 개인에게 감사 편지를 직접 작성하여 진심이 담긴 감사의 마음을 후원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편지를 받은 후원자들은 후원한 MK를 위해 더 기도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겠다며 본부로 감동의 답장을 전해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교회들과 개인의 관심과 후원으로 FMB MK 장학금이 풍성해지고 더욱 발전되어 갈 것을 소망합니다

FMB MK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캠프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할 사명감을 깨닫고 MK로서의 정체성을 다잡는 시간이었어요”

2024년 FMB MK 대학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OT)을 2월 5일부터 7일까지 서울 팀수양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GOD with US’(마 1:13)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OT에는 신입생 11명과 스텝으로 섬겨준 재학생 MK 선배 18명 등 총 29명의 FMB 자녀들이 참가하여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성경 속의 대표적 TCK(제3문화자녀)인 요셉, 모세, 다니엘의 삶을 보며 MK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타국에서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하셨음을 기억하며 한국 생활도 동행하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서로를 알아가는 아이스브레이킹 시간과 찬양사역자 이상현 전도사(우리는교회)가 인도하는 찬양 간증 집회를 가졌습니다.

둘째 날에는 선배 MK의 국가장학금 안내, 강성호 목사(예안교회)의 이단 세미나, MK패널토의, 학교별 모임, IMB 설훈 선교사가 진행한 버크만 진로 심리적성 검사 등 대학 생활을 알차게 시작하도록 돕는 다양한 안내 및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MK패널토의 시간은 선배MK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직접 준비하여 진행한 Q&A 시간입니다. 대학내 술 문화, 재정관리, 학점관리, 군 입대 등 선배 MK가 신입생 MK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에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녁 집회에서 웰사이드 워십팀이 찬양을 인도하였고 유럽 선교사였던 안창국 목사님(라이트하우스 고양 교회)이 ‘뜻을 정한 다니엘’(단 1:1-21)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말씀을 시작한 안창국 목사님의 메시지는 MK들의 무너진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점검하며 삶의 예비자로 세상에서 구별되게 살아갈 것을 도전받고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FMB 주민호 회장님의 격려사와 신입생 MK 11명을 위한 입학 축하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주민호 회장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메시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짚어주며 힘있게 MK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후 한국 역사 및 문화 체험을 위한 야외활동으로 전쟁기념관을 방문하고 에버랜드에서 친교를 나누는 활동을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신입생 OT는 FMB에서 처음 기획되어 진행된 2박 3일 캠프형 신입생 오리

엔터테인먼트였습니다. 선교지에서 다시 국내로 리엔트리하는 MK를 위한 신입생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진행하였고 선교지에 있는 1명의 MK를 제외한 신입생 11명 전원이 참석하여 더욱 의미있는 출발이었습니다.

아래는 신입생 OT를 참여한 MK들의 소감문을 발췌한 내용입니다.

“진지하게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생겨서 좋았습니다. 원래 제 이야기하는 것을 안 좋아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저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FMB MK들과 계속 소통하고 연락하며 지내려고 해요.”

“MK의 삶을 공감해줄 사람이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해서 혼자서 고민하고 견뎌야 될 것 같았는데, 함께 울고 웃고 공감할 수 있는 MK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위로가 되었어요.”

M12 결성

M12는 FMB MK 캠퍼스 네트워킹 그룹의 이름입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후속 프로젝트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연결된 MK를 중심으로 12개의 대학(고려대, 성균관대, 서울대, 서울여대, 숭실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침신대, 한동대, 홍익대, 한양대)을 시작으로 12명의 대학



대표가 세워졌습니다. M12의 비전은 하나님 나라가 마치 작은 겨자씨가 심겨져 자라 큰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깃들과 같습니다. 지금은 국내에서 12명으로 시작된 작은 네트워킹 그룹이지만 M12를 통해서 MK가 MK를 위해 캠퍼스 내 선후배간 지속적인 연결과 학교별/지역별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국내로부터 해외까지 재생산하는 FMB MK 커뮤니티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랍니다. 이 마음에 동참하여 기꺼이 M12를 함께 시작한 12명의 MK를 위해 많은 기도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M12가 하는 일은 1) 각 대학 재학 중인 MK를 카톡 연결하고 자유롭게 교제하기 2) 연결된 MK들에게 긴급 기도제목이 생겼을 때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기 3) 본부의 도움이 필요한 MK의 상황을 보고하기입니다. 학기가 마친 후 6월 중 M12 첫 공식 일정인 MT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MT에서는 예배, 학교별 MK 커뮤니티 현황, 학교별 MK 현황, 아이디어 회의 등 M12를 각 학교별 시스템에 맞게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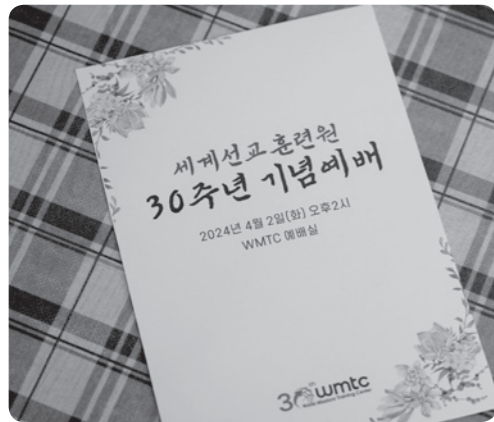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열매와 기대

작년 11월에 FMB MK 간사로 MK사역을 시작하고 어언 5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역에 앞서 다른 무엇보다 MK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먼저 구했습니다. 12월에는 겨울방학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돌며 국내 대학생 MK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모임에서 저를 소개하며 FMB MK 사역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 기간동안 대략 30명의 MK들을 만났고 놀랍게도 그 중 20명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스태프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리엔테이션이 마친 후 12명의 캠퍼스 대표가 세워졌습니다. 이전까지는 FMB MK로서의 소속감이 크지 않았던 MK가 이제는 자부심을 가지고 서로 하나 되기 위해 힘쓰려는 자발적인 움직임들이 가장 큰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MK 사역을 얼마나 축복하시고 기대하는 바가 크신지 눈으로 보며 경험할 수 있던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MK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FMB를 통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FMB MK 사역은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FMB MK가 그리스도 안에서 각자를 부르신 뜻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는 자들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WMTC 30주년 기념예배

WMTC는 1994년 3월 28일에 개원하여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30년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더욱 발전하며
미래의 건강한 선교사들을 잘 배출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 7차 FMB 인투네트워크 카이로 무슬림 전략회의를 마치고



| 문승호 (인투네트워크 대표코디)

2023년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인투네트워크가 주최한 제7차 FMB 카이로 전략회의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이번 전략회의는 "이슬람 세계관과 복음 전도"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FMB 무슬림 사역자중에서 77명의 선교사들이 모여, 이슬람 세계관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함께 복음 전도에 대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세계관을 넘어 복음 전하기(Sharing the Gospel Across Worldviews)

주제 강사로는 Crescent Project의 James & Faith Cha 선교사 부부가 참여하여 두 가지 주제를 다루었다. 먼저는 '세계관을 넘어 복음 전하기(Sharing the Gospel Across Worldviews)' 라는 주제였다. 세계의 다양한 세계관을 세가지로 분류하고 각 세계관에 따른 선교 전략과 선교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여 복음을 전한 경험과 간증을 나누었다. 두번째 주제는 '타문화권 선교에서의 영적 전쟁(Spiritual Warfare in Cross-Cultural Ministry)'이었다. 다양한 문화권에서의 영적 전쟁과 타문화권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사가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포함하여 내용이 풍성하고 도전 되는 강의였다.

제임스 차 선교사의 첫번째 주제강의는 이번 전략회의 주제로 참석한 선교사들에게 선교 전략의 실제적인 면을 보여주는 내용이었다. 강의의 요점은 세계관을 3가지로 분류하는데 죄책감 세계관, 수치 세계관, 두려움 세계관이다. 각 세계관에서 사단이 역사하는 방



법이나 수단이 다르기 때문에 세계관에 맞는 적절한 전략으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죄책감 세계관은 대부분의 서구사회를 대표하는 세계관이다. 준법 정신을 강조하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이성과 지식에 초점을 맞추는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단은 거짓말을 주입함으로 죄책감을 제거하여 사람들을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한다. 예를 들면 낙태는 살인이 아니라 여성의 선택권이라고 주장한다. 주로 무신론, 진화론, 보편주의 혹은 다원주의, 또는 성적 정체성의 혼란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수치 세계관은 10/40 창의 창의적인 접근지역에 분포되며 주로 아시아,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이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명예를 지키려고 한다. 진리나 사실보다는 명예를 우선시하고 수치와 명예는 단지 감정이 아니라 사회적 위치를 나타낸다. 수치심은 일상에서 사람들을 통제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서양에서 수치는 개인적인 실패에 불과하

나 동양에서는 집단의 실패가 된다. 이 세계관에서는 집단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사단은 이러한 세계관 속에서 사람들을 수치스런 정체성의 노예로 만든다. 잘못 행한 것 자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아랍세계나 무슬림 세계에서 나타나는 명예 살인이 대표적인 것이다. 아시아인들은 이런 경우 자살로 나타난다. 이런 세계관에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는다.

두려움의 세계관은 역시 10/40 창 지역이며 부족들 사이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악의 눈이나 저주, 심지어 죽음을 막아내는 권력이나 능력을 강조한다. 무당이나 마녀가 사람들을 보호하거나 축복을 제공하며 영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성향이 강하다. 이 세계관은 죽음이나 저주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다. 무슬림 나라들의 점술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슬람과 힌두교 그리고 불교 등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는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 보호하는 귀신들에게 어린아이를 바치는 풍습이 있다. 조상을 숭배하는 풍습도 조상의 영으로부터 축복과 보호를 구하는 것이다.

이런 특징을 가진 세계관에서 복음전도와 제자양육의 전략과 접근법이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 죄책감 세계관에서는 사실이나 진리로 소통하는 방법을 강조해야 하고, 4영리나 브리지 전도법과 같은 방법이 유용하다. 변증과 논쟁을 통해 진리를 만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 경우 성경공부나 주일예배에 초대하는 것이 유용하다. 수치 세계관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집단보다는 일대일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남성과 여성이 혼합된 상황보다는 따로 전도하는 것이 좋다. 부모나 친척에 대해 묻고 그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성경이나 예수 영화 CD 혹은 간단한 캔디를 준비해서 손님으로 갈 때나 손님을 맞을 때에 그들을 명예롭게 해 주어야 관계가 좋아진다. 도움이 필요하거나 수치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두려움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환상이나 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좋은 전략일 수 있다. 기적적인 치유는 복음전도의 매우 유익한 전략이다. 맹세나 잘못된 믿음, 부모가 실행한 무속적 의식과 같은 것에 대해 철저한 회개를 하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제자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생각의 힘 - 습관의 힘 - 말의 힘

또한, 집회 강사로는 LA 아름다운 교회의 고승희 목사는 매일 저녁마다 일련의 시리즈

메세지를 통해 선교사들에게 도전을 주었다. '생각의 힘', '습관의 힘' 그리고 '말의 힘'이란 제목으로 신앙의 개념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개념은 생각에서 나오며 생각을 통해서 믿음의 개념이 생기고 생각을 통해서 악의 개념이 형성된다. 감정도 생각이 처리된 결과로 생긴다. 믿음의 행위가 반복될 때에 비로소 뿌리 깊은 사고의 틀이 변화되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습관의 힘'이라고 했다. 생각의 힘은 개념을 만들어 주고 습관의 힘은 그 개념을 실천하게 만드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며 믿음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는 말의 힘이다.

고승희 목사의 허버트 사이몬(Herbert Simon)의 의사결정 모델에 근거하여 3가지 제목의 시리즈 강의를 신앙에 적용하였다. 사이몬은 인간이 의사 결정하는 과정을 입력-지각-인식-행동-출력의 단계로 표현했다. 고목사님은 입력단계는 생각의 차원으로 표현했고 이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 오는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각하고 인식하고 행동하는 과정은 믿음의 단계로 보았다. 믿음이란 생각을 붙드는 것이다. 사이몬의 모델에서 인식할 때에는 인간의 내면에 축적된 이전에 입력된 정보들이 올라와 반응하고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이 과정이 믿음의 단계로 내가 어떤 생각을 붙들고 있는가를 보면 믿음인지 불신양인지 판단된다고 한다. 빌립은 자신들이 5천명에게 음식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믿음 없음을 드러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명령하시니 물위를 걸을 수 있다는 생각을 붙들었기 때문에 믿음대로 된 것이다. 이런 믿음의 결과는 말의 힘이다. 사이몬의 모델에서 출력이 곧 말의 힘이 되는 것이다. 이때에는 말 자체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 고목사님의 시리즈 메세지는 실제 신앙생활에서 신자들의 세계관이 깊은 뿌리까지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사이몬의 의사 결정 모델과 말씀을 통해 설명하면서 사회과학 연구 결과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현장 선교사들의 발제와 논문발표

인투네트워크의 전략회의에서 선교사들의 발제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며 발제를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번에 발제한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M국의 전바나바의 '이슬람 민족주의와 평화의 복음의 대화', J국 이스마일의 '명예와 수치문화 속에 살아가는 무슬림을 위한 복음 전도전략', K국 하자크의 '무슬림 세계관과 기도를 통한 복음 전도로의 접근' 필리핀 김종현의 '성서적 세계관 형성에 필요한 기독교 교육의 요소들', K국 최안나의 '키르기스인의 환대 문화 세계관에 적합한 전도와 교회개혁', U국 이한길의 'U

국의 세계관과 상황에 맞는 사역전략과 방향성에 대한 이해' B국 남은자의 '세계의 관점으로 본 방글라데시 여성 이슬람 사역 사례발표'.

이 밖에도 FMB 사역자들이 박사학위를 취득한 논문들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문승호는 '터키에서 활동중인 한국선교사의 교차문화 리더십 역량에 대한 질적 평가'를, 오선택은 '구술문화권 제자훈련과 소통연구'를, 황이브라힘은 '터키 개종자들의 세계관 변화요인과 역학'이란 주제의 논문을 발제하였다.

이번 전략회의 주제 강의와 선교사들의 발제는 같은 맥락에서 준비되어 실제로 여러 선교사들이 주제강의에서 나온 세가지 세계관중에서 무슬림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수치 세계관에 적합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선교사들이 이론적인 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며 사역하는 중에 적합한 전략을 사용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전략회의 장소 카이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무슬림 전략회의를 진행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었다. 이집트는 무슬림 형제단이 발생한 나라이고 카이로에는 전통 이슬람의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알아즈하르 모스크와 대학교가 있다. 뿐만아니라 이집트는 중동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존재하는데 예수님 시대이후 끊임없이 존재해 온 콥틱 정교회가 있는 나라이다. 그 영향으로 콥틱 교회로부터 나온 개신교 신자들이 적지 않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던 당이며 모세가 출애굽한 곳이기도 하다. 이집트는 세계 문명의 발상지이기도 하여 역사적이나 신앙적으로나 선교적으로나 중요한 위치에 있다. 특히 전략회의 장소가 일반 호텔이 아니라 정교회의 수련회장이었다는 점에서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모임의 의미와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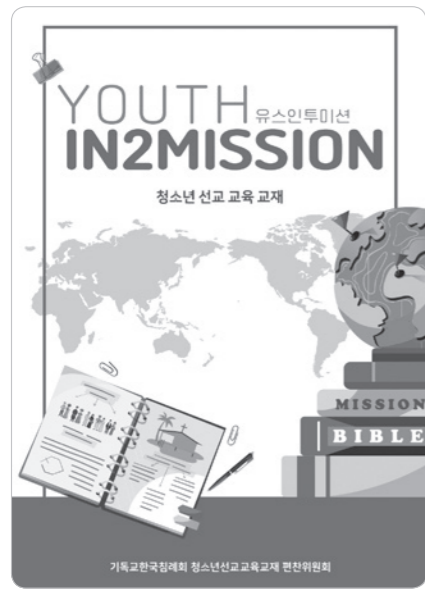
이번 제7차 FMB 카이로 전략회의는 무슬림 선교사역을 위한 전략회의라는 차원에서 기본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론 FMB의 무슬림 지역이 아닌 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을 읊저버로 초대하여 이와 동일한 전략회의가 다른 종교권이나 문화권에서 일어나도록 격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읊저버로 참석한 분들에게 큰 도움과 도전이 되었으며, 앞으로의 선교사역에 전략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희망과 지침을 제공했



다. 인투네트워크는 단순히 무슬림 지역만이 아니고 힌두권과 불교권, 공산권, 유교권, 카톨릭권 등 다양한 문화권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이 전략회의를 만들어 가도록 기본틀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인투네트워크는 더 많은 전략 모임을 통해 선교 사역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 전략회의의 주제강의와 발제들은 책자로 편집하여 인쇄하였다. 인쇄된 책자를 참가자들에게 배포하였고 동시에 PDF 파일로도 공유하였다. 이번 전략회의를 위해서 많은 지원과 기도가 있었다. 다양한 교회와 개인 후원자들의 힘이 있어서 가능했다. 특히, LA 아름다운 교회를 비롯한 다수의 교회가 후원하였는데 강남중앙침례교회, 동상제일침례교회, 마산영광침례교회, 부산침례교회, 시온침례교회, 알라바마제일한인침례교회, 알마타중앙교회, 지구촌교회, 하나엘교회 등의 교회들이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외에도 전략개발연구원(SRDC)과 강설화 선교사, 김형윤 목사, 이금주 선교사 등의 개인 후원자들의 지원이 있었다.

청소년 선교교육 교재 발간



세계선교훈련원(원장 김중식 목사)은 2024년 1월 청소년 선교교육 교재인 '유스인투미션(YOUTH IN2MISSION)'을 발간했다. 교재는 코로나19 이후 해외 선교가 자유로워지고, 젊은 선교사가 줄어 들고 있는 현실 속에서,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적인 선교교육의 필요성을 토대로 집필되었다.

편찬에는 전국여성선교연합회 백순실 총무,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송윤희 교수, 해외선교회 신재주 총무, 다음세대부흥위원회 안동찬 사무총장, 강남중앙침례교회 이길호 전도사, 세계선교훈련원 이병문 부원장이 편찬위원으로 참여했다. 특히 송윤희 교수의 지도하에 한국침례

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박사, 석사, 학부 과정 학생들과 신학대학원 과정 학생들이 참여해서 교재를 함께 집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교재는 선교의 성경적, 역사적, 문화적, 전략적 관점에 맞춰 전체 12과로 구성돼 있다. 1과는 세계선교의 현황, 2과는 선교의 성경적 기초, 3과는 한국 침례교 역사, 4과는 위대한 선교사들, 5과는 문화의 이해, 6과는 타종교의 이해, 7과와 8과는 각각 카자흐스탄, 인도 연구, 9과는 국내 다문화 선교, 10과는 다양한 선교사, 11과는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12과는 수료식이다.

전체 과는 유닛으로 구분돼 있어 교회 교육, 기독교 대안교육 등의 상황에서 유연하게 사

YOUTH IN2MISSION 구성 및 활용법

● 구성
Youth In2Mission은 청소년 선교 교육 교재로,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선교를 배우는 활동 중심형 교재입니다. 교사용 자료(미리판), 학생용 활동지(PDF), 그리고 교수 자료(PP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용 활동지에는 3개 이상의 활동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12과(冊) 전체 구성

과	제목	주제
1과	출발- 세계선교 속으로	세계선교의 현황
2과	성경: 하나님의 선교이야기	선교의 성경적 기초
3과	한국 침례교, 복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국 침례교 역사
4과	3시대 3선교사	위대한 선교사들
5과	문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문화의 이해
6과	다양한 종교 이해하기: 다른 세계, 다른 신들	타종교의 이해
7과	유라시아의 심장부, 카자흐스탄	선교사: 카자흐스탄
8과	나미비아 인도교 마나인	선교사: 인도
9과	국내 이주민 선교, 대한민국 속 지구촌	다문화 선교
10과	후미유? 가지각색 선교사	다양한 선교사
11과	내가 있는 곳에서 세계를 품다!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
12과	수료식에	수료식

YOUTH IN2MISSION 구성 및 활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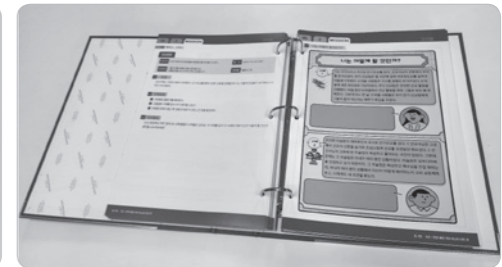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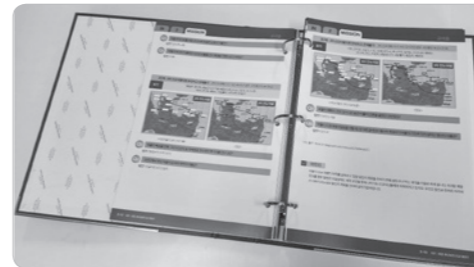
● 과(冊)의 구성

제목	구성	내용
표지	제목, 중심 상징, 구절, 학습목표	제목, 상징, 구절, 학습목표
IN	도입 질문과 활동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는 질문과 활동
2	학습내용	교사용 강의 자료
MISSION	3가지 이상의 학습활동	주제에 맞는 다양한 학습활동

● 활용법
Youth In2Mission은 교회교육, 기독교대안교육 등의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교육			기독교대안교육
청소년 선교(교재) 훈련	선교주간 등 (일부 선택)	청소년 수련회 (일부 선택)	단기선교를 위한 집중 훈련
			수업 중 선교 교육

~ 상황에 따라 교재를 1과부터 12과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거나 혹은 4과교사 차는 주제의 과를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각 과의 활동은 모두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맞게 우선순위에 따라 활용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교재(교사)는 교사용 자료를 통해 미리 해당 과를 숙지하고, Mission 활동을 진행하면서 과의 내용을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미리판 교수 자료(PPT)를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설교 혹은 강의로 과의 내용을 전달한 후에, 활동용 통해 핵심 내용을 다시 기억하도록 해도 좋습니다.



용할 수 있다. 각 과가 개별 유닛으로 구성돼 있어 교사는 순서에 상관없이 필요한 과만 선택해서 가르칠 수 있다. 또한 과별로 3가지 이상의 학생활동자료를 수록하여 학생들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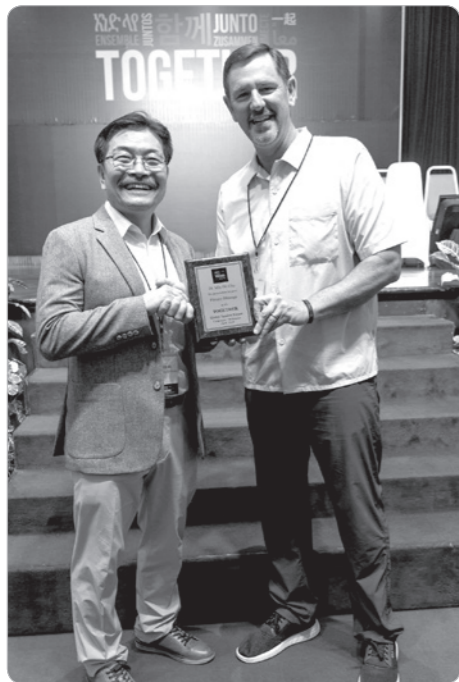
주민회 회장(해외선교회)은 “최근 젊은 인구의 하락과 교회의 약화에 이어 선교 열정의 감소로 선교동원이 쉽지 않은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교회가 선교 완성에 쓰임 받기 위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젊은 선교사가 계속 나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며 “교재가 그 일에 쓰임 받길 기도합니다”고 추천했다.

구매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wrmtc94@gmail.com)

2024 글로벌 샌더스 포럼

(Global Sender's Forum)

문승호¹⁾



지난 4월 15일~20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전 세계 76개국에서 온 320여 명의 침례교 선교지도자들과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글로벌 샌더스 포럼은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IMB)가 마련한 자리로 글로벌 협력 선교사(Global Missionary Partner)를 동원하여 미전도 종족들 가운데 효과적인 복음의 확장을 위한 협력을 추구하는 모임이었다. 이 포럼의 핵심내용은 우선 선교 대상인 미전도 미접촉종족(Unengaged and Unreached People Group)과 선교의 글로벌 협력(Global Collaboration)이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는 이사 중에서 박호중 목사(터크로스처치), 송호철 목사(늘사랑교회),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본부에서 주민호 회장과 문승호 국제총무 그리고 컨넥터 이금주 선교사가 참석했다.

글로벌 샌더스 포럼이 참석자들에게 주는 질문은 크게 두 가지였다; 오늘날 세계 선교의 흐름 속에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들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1) 해외선교회 국제총무(International Ministry Director), 튀르키예 선교사

선교 사역은 미전도 종족(Unreached People Group)²⁾과 미전도 미접촉 종족(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Group)³⁾에 집중한다는 것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글로벌 교회가 협력하는 전략에 집중하는.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IMB)는 이것을 위해 국제화 전략을 세우고 글로벌 교회들과 협력을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여주었다.

글로벌 샌더스 포럼의 표어는 “함께”(together, Juntos, 一致, Ensemble, Zusammen, Bmecte)였다. 개회예배에서부터 모임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찬양하였고 다양한 언어와 나라별, 대륙별로 특징적인 몸짓으로 춤을 추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 또한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한국어,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말씀이 선포되었고 계시록 7:9 말씀이 연상되었다.



프로그램은 아침 8시 15분에 시작되어 저녁 6시까지 분주하게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예배와 주제강의 및 기도와 간증의 시간이 있었고 오후에는 글로벌 선교의 협력을 주제로 한 다양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수요일 저녁에는 다양한 언어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글로벌 예배의 시간이 있었다. 두번째날 오후에 파송하는 국가와 단체들의 부스 전시회가 있었고 세번째 날 오후에는 협력 선교사를 요청하는 국가와 단체들 및 선교팀의 부스 전시회가 2시간씩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기도와 간증 그리고 결단과 헌신의 순서가 있었다.

주제 강연

4일 동안 매일 오전 시간에 주제 강연이 4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토고, 한국, 브라질의 선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이번 포럼의 주요 주제를 다루는 강연을 했다.

첫번째로 미국 남침례교 국제선교부 총재 폴 치트우드(Paul Chitwood)는 “이 세상의 가장

2)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은 복음적인 기독교인이 전체 인구의 2% 미만이며 그 종족을 위해 사역하는 선교사가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3) 미전도미접촉종족은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group)로 아직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역하는 선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종족을 의미하며 약자로 UUPG라고 표시한다.



큰 문제: 잃어버린 영혼”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였다. 전세계의 80억 인구 중에서 절반 이상의 인구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이며 선교사가 존재하지 않는 미전도 미접촉 종족 그룹이 3000개 이상이 존재한다는 보고는 선교의 큰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미전도 미접촉 종족은 서남아시아에 1003개, 유럽에 220개, 아시아태평양지역에 448개, 중앙아시아에 146개,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에 453개, 북아프리카와 중동에 450개, 아메리카대륙에 205개, 그리고 글로벌 청각장애자 영역에 147개가 분포되어 있다. 특히 주목을 끌었던 부분은 청각장애자 영역이다. 인종적 구분보다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에서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미전도 미접촉종족 그룹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명확한 선교의 방향성과 요한계시록 7:9의 종말론적 목표를 제시하였다.

두번째 주제 강연은 토고 침례교 초대 총회장인 크와시(Kwashi) 목사가 “교회는 왜 선교사를 보내야 하는가”(행 2:42-47; 13:1-3)라는 주제였다. 아프리카 교회가 지금까지 선교사를 받는 대륙에서 이제는 아프리카 교회가 선교해야 하며 선교사를 보내는 일에 대한 당위성을 언급했다. 앰블란스는 환자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면 교회는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 세워졌으며 선교사는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세번째 주제강연은 해외선교회(FMB) 주민호 회장이 “왜 선교사의 과업인가”(마 28:18~20; 행 1:8; 롬 10:13~15)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다. 선교사의 과업은 1) 선교지로 들어가서 2) 복음을 전하고 3) 제자를 삼으며 4) 교회공동체를 이루고 5) 지도자를 개발한 후에 6) 현지교회와 동역자 관계에서 떠나는 것이다. 주민호 회장은 자신의 30년간 카자흐스탄의 사역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사 과업을 수행했는지 간증하여 참석한 각국 선교지도자들에게 감동과 도전을 주었다. 그는 1991년에 선교사로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카작 형





제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함께 지내면서 제자양육을 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공동체를 세웠다. 2008년에 현지 형제를 목회자로 세워 리더십을 이양하고 동역자로 함께 사역하다가 떠난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열매들이 있었다. 100개 이상의 현지 교회 공동체가 교단 형성을 하였고 든든한 리더십이 세워졌다. 주민호 회장의 카자흐스탄 사역은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과업을 통해 일하신 생생한 간증이었으며 선교사 과업의 단순성과 선교사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보여주는 모델이었다.

마지막 주제 강연은 브라질 침례교 총회장 페르난도 목사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는데 왜 우리는 함께 협력해야 하는가”(벨 1:3~5)였다. 페르난도 목사는 교회는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선교운동이며 선교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이기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할 때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나님께서 브라질의 수많은 사람들을 죄가운데서 건져내어 그들을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선교현장으로 불러서 사용하신 간증을 나누었다. 브라질 침례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선교사역은 신자들의 협력을 통해 일하신 것이며 글로벌 선교 사역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각 나라와 민족 교회들의 협력을 요청하시는 것이다. 페르난도 목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글로벌 교회가 협력하여 지상명령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샵

전체 일정 가운데 3일에 걸쳐 33개의 워크샵이 진행되었는데 참가자들은 관심있는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하였다. 워크샵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참가자 국가 침례교회의 선교 사역과 선교회 역사 그리고 글로벌 교회들의 협력 선교였다. 브라질 침례교회, 필리핀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의 선교회 역사와 선교 사역을 소개하는 워크샵, 최근 선교회를 구성하고 선교사를 본격적으로 파송하기 시작한 인도네시아, 타이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 침례교회 선교 사역 워크샵이 여기에 해당된다.

글로벌 교회들의 협력선교에 대한 워크샵은 효과적인 타문화 선교 협력과 팀이루기, 동원가의 역할, 비즈니스맨과 회사대표들의 선교 협력 전략, 더 효과적인 협력을 위해 다국적 상황에서 현지인 동역자들과 팀이루기, 아시아 지역에 새로운 선교부를 설립하기 위한 다국적 협력방안, 아프리카 13개국의 초대륙적 선교부 형성과 협력, 초교단적 협력 선교, 효과적인 지역사회 개발 전략 등 다양한 워크샵이 진행되었다.

한편으로 남침례교 국제선교부(IMB)의 글로벌 협력 선교 워크샵이 있었다. 국제선교부는 GMP(Global Mission Partners)⁴⁾란 무엇인가,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8단계, 해외선교 동원, 파송, 후원과 지속적으로 선교사를 유지하기 위한 훈련, 유럽에서의 사역의 도전과 기회, 남미 대륙에서의 선교 동원 등 지난 178년간의 선교 경험을 글로벌 교회들과 나누고 기본적인 선교 현장 시스템과 지역교회의 선교 교육과 협력을 위한 방법을 제공했다. 그중에 핵심적인 워크샵은 글로벌 미션 파트너(GMP)이다. 글로벌 교회들이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국제선교부의 선교 현장에 있는 다양한 선교팀에 배치하여 초기 선교 사역 과정을 숙달하게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 한가지 중요한 워크샵은 지속적인 선교를 위한 8단계 선교 세미나이다. 8단계란 1) 목회자: 선교비전 확장하기 2) 지역교회동원 3) 교회사역: 건강한 교회세우기 4) 선교사 양성 5) 타문화 선교를 위한 계획 6) 타문화 선교사 선발 및 훈련 7) 동역자 계발 8) 선교지: 선교 과업 완성하기이다. 일반적으로 선교를 6~8단계만을 실행해 왔다. 선교의 큰 틀에서 지역교회와 밀접한 1~5단계를 그동안 소홀히 여긴 경향이 있었다. 지속적인 선교를 위해 8단계 모두 중요하며 선교를 온전하게 한다. 국제선교부(IMB)는 오랜 경험을 통해 8단계 세미나를 개발했으며 이번 포럼에서 글로벌 교회에

4) 글로벌 협력 선교사(GMP)는 선교 현지 교회에서 타문화 선교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협력 선교사로서, 현지 교회나 파송 기관에서 선발되어 파송되며, 미남침례교 국제선교부(IMB)의 현장 선교사들에 의해 확인된 후에, 선교 목적지의 IMB 현장 팀과 협력하여 일하는 선교사를 말한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나누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기독교한국침례회 해외선교회(FMB)는 이번 포럼에서 2가지 워크숍을 인도했다. 하나는 해외선교회의 역사와 선교 동원, 훈련, 파송, 후원, 전략에 대해 소개하는 워크숍이었다. 선교지 국가였던 한국교회가 급성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아직 선교사 파송이 활발하지 못하거나 선교사 파송을 엄두내지 못하는 나라들의 교회에게 도전이 되고 방향을 보여주는 한 모델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이 워크숍에서 주민호 회장은 해외선교의 비전과 방향성에 대해, 문승호 국제총무는 선교회의 조직과 해외 선교사 배치와 구성에 대해, 이금주 선교사는 동원, 훈련, 파송, 후원과 관련하여 그리고 해외선교회 이사 송호철 목사는 지역교회가 어떻게 선교사를 선발하고 후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늘사랑 교회의 실례를 들어 나누었다. 남미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에서 온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으며 한국 단체에서 온 지도자들도 참석하여 유익한 질문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한 아프리카 지도자는 한국에서 파송된 선교사 중에 이단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침례교 이름을 사용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여 현지 교회들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언급하였다.

Sender's Fair와 Receiver's Fair

이번 포럼 기간 동안에 각 나라의 파송 단체들과 GMP(Global Missionary Partner), 즉 글로벌 협력 선교사를 수용하고자 하는 국제선교부 현장 선교팀들이 부스를 설치하여 소개하고 준비한 작은 선물⁵⁾을 나누며 네트워크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 해외선교회(FMB)는 파송 단체로서 부스 설치를 했으며 30여 나라에서 참석한, 협력을 원하는 선교 지도자들과 교제가 이루어졌다. 이들 나라 중에는 해외선교회에 자신들의 선교사를 GMP로서 파송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또한 해외선교회의 선교사를 GMP로 보낼 가능성이 있는 국제선교부의 현장 선교 팀장들과 교류하며 현장의 어떤 필요가 있는지 어떤 종류의 GMP를 원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국제선교부(IMB)는 선교지를 나라별로 구분하지 않고 종족별로 구분하여 사역을 하며 해외선교회(FMB)가 들어가지 않은 많은 지역과 종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하기 때문에 협력을 통해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나눌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지구촌 교회의 지원으로 핸드폰 거치대를 작은 선물로 준비하였다.

결단과 헌신

글로벌 샌더스 포럼(GSF)의 마지막 날에는 여러 미전도 미접촉종족(UUPG)의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 마지막 시간에 76개국의 침례교 총회장들과 선교 지도자들이 결단과 헌신의 시간을 가졌다. 단체들과 교단 선교부들은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선교에 헌신하겠다는 결단의 내용을 나누었다. 해외선교회는 포럼에 참석한 이사 목사님과 리더십 그룹이 모여서 4일간의 포럼을 정리하며 하나님께서 미전도 미접촉종족(UUPG)을 향하여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지를 논의한 후에 다음과 같이 결단하였다.

“The Foreign Mission Board of the Korea Baptist Convention will revise, refocus, and rededicate its efforts towards reaching 3,161 unreached and unengaged people groups.”(침례교 해외선교회는 미전도 미접촉종족그룹 복음전도의 비전을 새롭게 하고 선교의 초점을 다시 맞추고 재헌신할 것이다.)

해외선교회는 1988년 발족한 이래 1989년에 첫 선교사를 인도네시아에 파송하고 이후 미전도 무슬림 종족이 있는 중앙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여 30년이 지난 지금은 상당한 열매를 맺었고 지속적으로 북인도와 서아프리카와 같은 미전도종족 지역을 집중 사역지로 정하고 선교에 임했다. 시간이 흐르며 교단 선교회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점차 지역교회나 선교사 자신이 원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하게 되며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특정 지역에 초점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글로벌 샌더스 포럼을 통해서 집중해야 할 선교의 방향을 새롭게 정하고 나가야 한다는 결단에 이르렀다.

이번 포럼에서 미남침례교 국제선교부가 의도하는 바는 분명했다. 선교의 목표인 미전도 미접촉종족 그룹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질문하고 답을 함께 찾아 가자는 것이었다. 국제선교부는 2세기에 가까운 지난 선교 역사 속에서 글로벌 교회가 함께 가지 않으면 이 선교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겸허한 태도를 보여주었고 동시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선교 경험을 통해 배운 바를 나누고자 하는 적극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다.

디아스포라 선교사훈련 소감문

'24년 1월 15일부터 26일까지 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훈련이 있었습니다. 16명의 훈련생이 5개국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 김도윤, 도현경

-멈춤

중국 상하이에서 디아스포라 한인사역으로 바쁘게 4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보면 사역의 3/4는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갑작스런 이전과 많은 일들이 상해지구촌 공동체에 일어난 이 시점,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 이 때에 하나님께서는 흐르는 물을 갑자기 막아 선 것 같이 한국으로 들어와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만남 & 안식

이곳에서 세계 각 지역에서 디아스포라 한인사역을 하는 여러 선배님과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디브리핑 시간, 한분 한분의 소개와 기대하는 마음을 들으며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동일한 어려움을 겪어내었고 또 견뎌온 것 같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땅은 다르지만 같은 길을 가는 분들과의 만남, 그 자체로 긴장된 마음이 풀어지며 안식에 들어가는 것 같은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삶을 나누는 한마디 한마디가 위로와 감격과 힐링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공간적 먼거리가 한 순간에 좁아지고, 동질감을 느끼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좌표 확인 & 방향설정

우리가 소속될 든든한 울타리 FMB를 소개받고 세계선교의 동향을 통해 지금 복음이 세계를 향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또 나아가게 될 방향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디아스포라의 정의와 정체성을 살펴보았고,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선교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머슴교회를 통해 디아스포라 목회의 철학을 배우며 오직예수로 목회하며 나아가야 하는, 그 본질을 더욱



고찰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순간 순간 낮아짐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한 영혼에게로 나아가길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며, 나를 잘 아시며 우리 공동체를 잘 아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 곳으로 인도하신 주님, 또 신실하게 이끌어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상하이 땅으로 돌아가면 해결해야 할 사역과 바꾸어야 할 환경이 동일하게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의 인도하심 속으로 나의 작은 삶을 던져 불려고 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시도록...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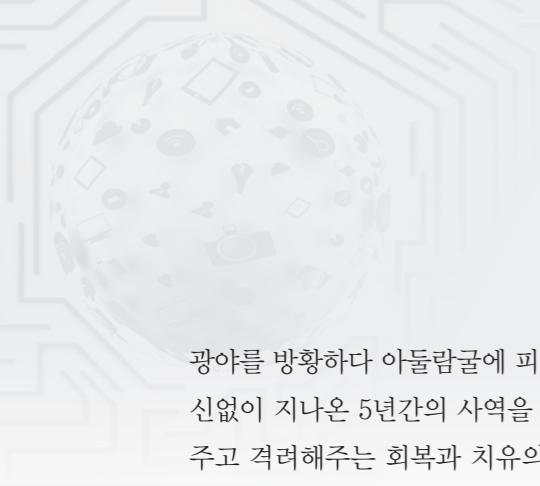
● 마음, 다해

안녕하세요! 제 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 참석 가정 마음, 다해 입니다. 훈련에 참석하기 전에는 하나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지 못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러나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대감이 생기며 마음을 다해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심리상담을 통해 저희 가정과 공동체의 현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선교사의 정체성을 확인하게 되었고 선배 디아스포라 목사님들을 통해서 반드시 붙잡고 가야할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결코 숫자가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며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까지 온전히 서도록 세워가는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이 기대가 됩니다. 귀한 시간 준비해주시고 함께해 주신 훈련원 부원장님과 모든 스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좌절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새 소망을 얻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 이승준, 이현주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정든 곳을 떠나며”

저희는 제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을 마치게 된 이승준 목사, 이현주 사모입니다. 2주간의 훈련의 기간은 저희에게 아둘람 굴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이



광야를 방황하다 아들람굴에 피신하여 쉼을 가졌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이 시간은 정신없이 지나온 5년간의 사역을 되돌아보고, 바쁘게 달려온 저와 아내의 삶을 다독여 주고 격려해주는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다윗의 아들람굴에 함께 하는 여러 동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디아스포라 동료들을 만나게 되어, 서로의 기쁨과 애환을 나누며 기도하고, 위로하는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훈련의 과정들이 있었지만, 디아스포라 사역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침례교 목회자로서의 침례교 신학의 기본을 재확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울러, 이제 다시 시작될 10년간의 사역을 내다보며 어떤 핵심 가치를 가지고 사역들을 펼쳐 나갈지에 대해 고민하고, 정립해나가는 좋은 토대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앞으로 펼쳐질 사역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된 것은 그 무엇보다 큰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바라기는 아들람 동굴에 모인 다윗과 동료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미래가 달라졌던 것처럼, 함께 했던 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에 참가한 모든 동료들이 주님이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그 땅의 미래를 복음으로 변화시켜가는 비전메이커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 정하늘, 조슈아

디아스포라 선교훈련을 권고받고 설레었다. 이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5년째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나 선교에 관한 교육과 이에 대한 대비책같은 정보가 전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이미 하고 있는데 무얼 배우려나 하는 마음이 중첩됐다. 교육 기간은 2주인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다. 첫시간이 부부별로 각자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같은 디아스포라 한인사역을 하지만 각자 다른 지역에서 시작도 환경도 연차도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로의 고충과 어려움들을 공감하며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었다. 심리상담 시간에는 지금 현재 내가 위치한 좌표를 파악해보라는 것이 신선했다. 되는데로 흘러가는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옳은 방향으로 혹은 내가 정진해 나가야하는 좌표인지를 생각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침례교단에 속해있지만 침례교단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어떤 역사를 갖고 있는지 배운것은 FMB 선교사 허입에 꼭 필요한, 침례교인으로서 꼭 알아야하는 내용이었는데 이제야 알게되었다는 것이 좀 부끄럽기도 했다. 5



년 만에 한국의 겨울에 방문했다. 눈을 보고싶었던 아이들에게 선물같이 눈이 내렸고, 우리가 하노이에 가기 전 9년을 살았던 이곳 대전에 가족과 함께 훈련센터에서 머문 시간이 참 특별했다. 우리가 사랑한 대전 이곳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훈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우리의 훈련과정을 계획, 진행하시고 물심양면으로 섬겨주신 WMTC 스텝분들께도 감사드린다. 디아스포라 선교훈련을 권고받고 설레었다. 이미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를 개척하여 사역을 5년째하고 있었지만 그 이전에 디아스포라나 선교에 관한 교육과 이에 대한 대비책같은 정보가 전혀 없이 현장에서 바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가 ‘더’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과 이미 하고 있는데 무얼 배우려나 하는 마음이 중첩됐다.

● 허석진, 전현옥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지치고 탈진한 엘리야에게 물으신 이 질문은 7년의 한인디아스포라교회사역을 섬긴 저희 부부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친 엘리야가 하나님께 “오직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대답했던 것처럼 저희의 대답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묵묵히 견디며 걸어온 길 그래서 세계선교훈련원에 들어오는 길이 가볍기보다는 지친 발걸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위해 만난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 혼자만 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남기신 칠천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셨고 듣게 하였고 서로 손잡게 하셨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시고 쉬게 하신 것처럼 저희를 위로하셨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격려를 얻는 기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훈련이 진행될 때마다 앞서 같은 길을 걸으셨던 선배님들의 간증과 교훈들을 통해 주의 길을 걷는 가치를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고 선교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시켜주셨습니다. 이번 제 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은 저희 부부에게 있어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로렘나무였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만난 호렘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걸음은 힘차고 확신에 찬 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섬김을 다해 주신 훈련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우리의 걸음을 다 아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 박상기, 장미연

2주라는 시간들을 세 아이들과 전쟁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반응할수 있을지? 아이들
로 인해 공동체에 폐를 끼치는것은 아닐는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2주라는 시간들
을 어떻게 지나가야 할지? 이런 훈련을 받아본적이 없었기에 여러가지 걱정들이 없
었던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걱정은 언제 했냐는 듯 처음 소개 하는 시간부터
모든 고정관념들이 깨졌고 나의 아픔과 고민이 모두의 아픔과 고민이었음을 알게 되
면서 마음의 문이 열려졌고 모든 강의의 시간마다 은혜의 시간들이었던것 같습니다.
말씀묵상의 큰 힘을 보여주시는 부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상담으로 섬겨주시는 교수
님! 마음 다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스태프 선생님들과 강사님들께도 찾아
가 고개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일
방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지요? 《제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훈련》이라
는 다시없을 이 훈련은 지쳐 넘어져서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과도 같은 은혜의 시간들이었음을 마음깊이 깨닫게 되어집니
다. 주님이주신 선물같은 이 시간을 마음깊이 새겨 지치고 힘든 피지의 우리 사랑하
는 형제 자매들과 아름답게 나누겠습니다. 저와 같이 일어서도록, 저와 같이 웃을수
있도록, 저와 같이 달려갈수 있도록 꼭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박용원, 신성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가운데 5기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에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각각의 사역지에서 홀로 고군분투 하던 디아스포라 선교사들을 한 자리
에 모아 주신 것만으로도 큰 위로의 시간이 되었는데, 유익한 여러 강의들로 사역을
점검하고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복과 새로운 결단으로 다시 나아가도록 은혜를 경험
하게 해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사랑의 섬김을 통해 위로하시고 혼자가 아픔을 다시
기억하는 것만으로 다시 마음을 추스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또한 교회의
일꾼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음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며, 선교지
에 파송된 선교하는 교회로서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다시 힘을 내어 나아가겠습니다.



● 박영주, 김정현

디아스포라여!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개시하라! 목회자를 기다리는 한 무리의 영
혼들을 향해 저와 저희 가정은 2019년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비자발급이 3개월간
늦어져 영상설교로 첫 예배를 드렸던 디아스포라 교회의 사역은 이제 올해로 6년째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비드의 파고를 지나 예배의 회복을 경험한 우리교회는 이제 선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선교주일을 제정하고, 선교기도함주회를 통해 중보
와 물질적 후원을 하는 공동체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선교를 향한 발
돋음을 시작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에게 갑작스럽게 ‘디아스포라 선교사
훈련’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선교사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디아스포
라 한인들이 얼마나 놀라운 선교적 자원이며, 선교사인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고국을 떠나 뉴질랜드에 온 성도들이 ‘선교사로
서의 마음을 품는다’면, 이미 파송 받은 귀한 선교사요, 선교지에 흠어진 디아스포라
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선교 캠프’로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 받
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얼마나 가슴 벅찬 기쁨으로 깨닫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훈련
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부여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디
아스포라 목회자로서 이미 살아온 강사목사님들의 강의 속에서 ‘교회의 사명-선교적
사명’으로 현지 한인교회들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이며, 그곳에 저를 부르심은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간다면, ‘디아스포라의 선교적 정체성’을 온 성도들과 나누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성경적 기초와 비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Commence! 개시하라!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사진으로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사훈련 



34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생 소개 및 기도제목

‘24년 3월 5일부터 5월 23일까지 34기 장단기선교사훈련이 있었습니다. 25명의 훈련생이 12개국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 이현진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시베츠시온교회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사 38:19)

저는 작년까지 평신도로 살았습니다 늦은 나이에 선교사 훈련을 받고 나머지 인생만큼은 주님이 저로 인해 웃을수 있도록 살고 싶어 부르심에 순종 했습니다.

■ 기도제목

1. 선교사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서 선교지에서 온전히 뿌리 내리도록
2. 언어 배움을 통해 말의 습관도 예쁜언어로 바뀌도록
3. 비자 받는 일에 형통함을 주시도록
4.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순종하도록

● 김현철 / 김윤주(찬영, 예진)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사스카툼비전교회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행 13:47)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를 부르셔서 사역하게 하신 곳은 중국이었습니다. 6년간 사역 후에 안식년을 맞아 신학공부를 하게 하였고, 그 후에 목회의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12년의 목회 기간 동안 제 마음에 꺼지지 않은 불이 있었습니다. 선교의 불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인도네시아로 가려고 합니다. 수많은 우상들과 무슬림들의 나라입니다. 그 땅의 대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외치는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의 꿈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뤄 가시는데 작은 불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로 갑니다. 언어와 문화에 잘 적응하게 하소서
2. 대학생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받아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소서
3. 기도와 재정의 후원자들을 붙이시며 깊은 동역을 이루게 하소서
4. 캐나다에 두고 온 자녀들(찬영, 예진)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 김부흥 / 이기쁨(우림, 헤린)



- 파송국가 : P국
- 파송교회 : 새누리2교회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사 41:18)

주님의 약속과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인간적인 연약함과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부르신 분의 행하실 비전들을 꿈꾸며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간 품꾼처럼 약속의 땅을 향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 영육 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3. P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소서

● 김아볼로



- 파송국가 : C국
- 파송교회 : 포항중앙침례교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마 9:36-38)

복음이 전해 지고 교회들이 세워 졌으나, 압제와 통제가 심해지고 있는 땅, 양들이 목자를 잃고 방황하는 땅,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땅, 무슬림과 불교, 불교와 도교등 다양한 믿음들이 병존하는 땅. 그 땅을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품고, 부르심을 따라 가겠습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꾼으로 잘 준비되고 사용되도록
2. 길을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잘 양육하여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지혜와 능력을 주시도록
3.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과 담대함을 주시도록

● 변공식 / 박영화



- 파송국가 : 키르기스스탄
- 파송교회 : 인천산성교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창 13:14-15)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주시는 땅, 키르기스스탄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으니 온전히 사용하셔서 그 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여지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사람과 환경을 보지 않고 오직 말씀에 붙잡혀 주님을 따르는 선교가 되게 하소서
2. 저희 부부 가운데 영, 육의 강건함이 늘 충만하게 하소서
3. 현지 언어습득에 지혜를 주시고, 현지 정착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4.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소서

● 이민욱 / 엄세영(희건, 희민)



- 파송국가 : K국
- 파송교회 : 뿌리깊은교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갈 6:2)

단기선교를 통해 영적 친분의 관계를 이어오던 K국 K지역의 교회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4기 훈련을 수료하고, 파송이 결정되면 올해 7월 2일 출국하여, 12월까지 현지에서 머물며 K교회와 협력하게 될 예정입니다. 섬기는 뿌리깊은교회는 K교회와 형제교회를 위한 협약을 맺고, 현지와 한국에서 협약식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 부부의 방문과 체류, 협력을 통해 공동체가 서로 힘을 얻고, 발전하는 기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K교회의 신임 담임교역자 가족을 잘 돕고 교회가 새롭게 힘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2. K국 언어 공부에 큰 진보가 있고, 현지 생활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3. 자녀들(희건, 희민)의 K국 체류를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미가 / 서열매(설령거, 양힐룡, 특수바야르)



- 파송국가 : 몽골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누군가 선교하면 누군가는 살게 되고, 누군가 선교하지 않으면, 누군가는 죽을 것입니다.”

샬롬! 저희는 몽골 새생명교회에서 사역하고 있었으며 2018년 5월부터 한국에 거주 중인 5만 명의 몽골인을 마음에 품고 지구촌교회 몽골 예배부와 지교회인 용인 처인구 몽골예배부를 설립하여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 사역하고자 합니다. 많은 몽골인들이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주세요.

■ 기도제목

1. 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해주신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꼭 보아야할 것을 보게 하시고 꼭 행해야할 것들을 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사랑을 몽골 땅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2. 올해 8월에 몽골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3. 가족의 건강과, 자녀들 학교, 재정을 위해서

● 김가람 / 최지선



- 파송국가 : 일본
- 파송교회 : 대전한샘교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창 12:1-2)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는 그 땅에 예비된 주의 자녀들이 저희 가정을 통해 주의 걸음으로 인도되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저희 가정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뤄지게 하소서
2. 구체적인 사역지와 사역 방향을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3. 배 속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셔서 건강하게 태어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 심한나



- 파송국가 : 세네갈
- 파송교회 : 예수마을교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후 5:15)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은 날, 더 이상 저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처럼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겠습니다.

■ 기도제목

1.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2. 아프리카 세네갈을 품고 함께할 배우자를 만나게 하소서
3.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소서

● 임마누엘 / 김다혜(다니엘)



- 파송국가 : 필리핀
- 파송교회 : 아름다운교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창 12:1)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사용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앞에 순종하며 기꺼이 저희 삶을 내어드립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겠으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기쁨과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가정의 주인이시며 오직 주만 사랑하고 신뢰합니다!

■ 기도제목

1. 매순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2. 선교지에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채우심과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3. 아들 다니엘이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하며 자라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소서

● 김일교 / 박성실(호수, 호이)



- 파송국가 : 탄자니아
- 파송교회 : 루원씨티교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나라와 여러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렘 1:10)

10여년 전부터 사랑하게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주님이 완전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 그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탄자니아땅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찬양으로 흘러넘치길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소명잇지않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2. 몸과 마음이 건강하도록
3. 주님의 마음으로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도록

● 김민재 / 박진영



- 파송국가 : 스리랑카
- 파송교회 : 동백지구촌교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예수님의 제자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 기도제목

1. 항상 영혼육 성령충만하고 강건하도록
2. 필요한 모든 사람, 물질, 상황 만들어주시고 채워주시도록
3. 선교지 나갈 때까지 말은 바 교회 사역과 선교사 훈련, 출국준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부족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되도록

● 진예일



- 파송국가 : 인도네시아
- 파송교회 : 소리교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행 4:20, 새번역)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사역자의 시절을 통해 보고 들은 복음을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나누는 선교사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2. 인도네시아 현지 언어와 문화를 잘 배우고, 현지인과 동화되어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도록 기도해주세요
3. 기도 중보자가 세워져 함께 기도로 동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이예희



- 파송국가 : 카자흐스탄
- 파송교회 : 더크로스처치

“범사에 네 자신으로 선한 일의 본을 보여 교훈의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딤후 2:7-8)

MK로 성장하며 겪은 문화 스트레스, 정체성 혼란 등 복잡다난했던 시절을 지나 '선교사'로서 아이들을 품을 수 있는 '교사'의 자리로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선배 MK로서 다음 세대 후배 MK를 품고 가려 합니다. 보이는 세계보다 중요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일을 그의 손에 붙들어 사는 삶을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일꾼으로서 삶을 감당하도록
2. 본격적인 사역 준비(비자, 비행기표, 등)를 잘 준비하며 사역에 필요한 일들이 순조로이 진행되고 채워지도록
3.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와 재정의 동역자들이 연결되고 함께 더불어 주의 큰 은혜가 넘치도록

● 강스텔라



- 파송국가 : T국
- 파송교회 : 지구촌교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하나님은 마 28:18-20 말씀을 통해 부르시고 젊음의 십일조를 드리자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T국에 1년 인턴선교 중 직접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는 저에게 지진현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영혼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T국에 단기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작년에 갈 6:9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 때라는 단어가 현지 성경에서는 계절이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제 현지 이름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될때 거두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길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1. 이 땅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도록
2. 이 땅에 복음의 씨앗들을 심고 물을 줄때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도록
3. 성령님의 깊은 교제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매일 임하도록

● 황예림



- 파송국가 : T국
- 파송교회: 함께하는교회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맡긴다”(렘 1:9)

터키에서 산 10년이 그냥 산 것이 아니라 훈련 받은 십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십 년 간 전도하고 영접하고 넘어지고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을 보고 저도 그렇게 훈련받고 경험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가정환경이 불우한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사랑받지 못한 청년들에게 부모이자 친구이자 가족이 되고 싶습니다.

■ 기도제목

1. 이 땅에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 주시고 기쁨의 소식에 반응 할 수 있도록
2. 청년공동체 안에 복음으로 나아갈수 있는 담대한 믿음 주시고 영적으로 성숙해 지도록
3. 청년이 청년을 감당하고 튀르키예 땅의 청년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도록
4. 순전한 마음으로 동역하고 두려움 없는 마음으로 복음의 전달자가 될 수 있도록



● 서열마

훈련을 시작하기 전, 설레는 마음에 기분이 좋고 기대도 많이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이라서 언어적인 부분에서 잘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훈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을 나누려합니다.

먼저 훈련 과정 중 주님이 저에게 너는 누구냐? 너는 어떤 Style의 사람인가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저는 하나님의 앞에서 제 모습을 낮추고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나 된 모습”, 즉 참된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번째로 아침 QT 시간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QT 했던 노트를 보며 Feedback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선 하나의 주제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였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답을 하나님의 뜻은 거짓된 마음이 아닌 참된 마음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마음을 저에게도 주셨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역이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한 영혼을 위해 나를 부르셨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로서 사역하기에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연약한 저를 위로해주시고 가르치시고 치유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우리 부부는 이곳에서 함께 훈련을 받고 서로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가 된 것을 느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함께 훈련을 받는 동기들과 강의해주신 선교사님, 목사님들 그리고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 김현철

저와 아내는 대학생선교회(CCC) 출신입니다. 98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아 6년간 사역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캐나다에서 약 10년 간 한인 목회를 재미나게 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저희 교회는 잘 버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에 선교에 대한 소명, 하나님의 부르심이 크게 들려왔습니다. 때가 된 것입니다. 과감하게 목회를 사임하고 교회는 후임자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선교를 준비하는 중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들을 통해서 FMB, WMTC를 연결해주시고 제 마음을 바꿔주셨습니다. 너무 잘 왔다! “너무 잘 왔다.” 아내와 저는 연신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훈련 프로그램들이 너무도 좋습니다. 소명과 사명, 태도와 자질, 관계 형성과 영성훈련 등 선교사 개인에 관한 것과 상황화를 비롯한 선교전략 등 사역에 관한 다양한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선교의 1차적 대상은 나 자신이다”라는 문구입니다. 남을 바꾸기 전에 나부터 바뀌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는 34기 동기 훈련생들입니다.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 하나의 소명, 즉 복음전파를 위해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헤어지고 나면 많이들 그리울 것 같습니다. 세번째, 세계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FMB는 저희에게 새로운 동지가 되어 주었습니다. 어디에 소속된다는 것은 매이고 구속된다는 단점보다 정체성과 소속감이 주는 안정감과 협력가능성 등의 장점이 훨씬 크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이걸 마치 그리스도 밖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얻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이병문 부원장님과 이영임 사모님, 그리고 저희를 섬겨주신 스텝들도 우리가 한 가족임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소속감 배양의 하이라이트는 WMTC 30주년 기념예배였습니다. “부르신 땅으로 나아갑니다 한걸음 한걸음마다 주의 십자가 품고~” 노래를 마친 후에 다같이 외쳤습니다. “침례 교회는 열방으로, 열방은 주께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터질것 같은 심장은 주님의 부르심이었고, “우리가 함께” 한다는 소속감의 발로였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물고 선교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것을 상상해봅니다. 그러다 쉽이 필요할때 저는 FMB 동지로 돌아와 다시 날아오를 새힘을 공급받을 겁니다. 저희에게 새로운 동지를 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조금 더 쓰실만한 그릇으로 다듬어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 황예림

저는 MK로 부모님을 따라 T국에서 반평생을 살았습니다. 선교사 훈련을 위해 한국에 간다고 하니 현지 친구들은 저를 한국으로 파송한다며 중보해 주었습니다. 친구들을 통해 왜 그런 기도를 하게 하셨는지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외국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T국에서도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훈련원에서의 생활은 어려울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동 생활을 하는 시간이 때로 힘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외형은 한국인이지만, 문화와 가치관은 외국인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타지에서 살아남으려는 노력이 주와 더불어 죽을 때 다시 살 수 있다는 한 선교사님의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에게는 이곳에서의 생활이 선교사로서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질문은 선교사로서 나는 무엇을 믿는가? 입니다. 훈련 기간은 내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고 틀을 만들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훈련 받기 전까지는 비눗방울 같았던 꿈들이, 구체적인 여러 질문들과 선배 선교사님들의 강의를 통해 이전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선교사의 과업이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들어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훈련원에 온 세계 주님이 보여주신 단 한가지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사는 것을 공유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결국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도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시 돌아갈 그 땅, T국에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가 제자 만들 수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사진으로 보는 34기 장단기 선교사 훈련



인턴선교사 소개 및 기도제목

‘24년 2월 13일부터 23일까지 인턴선교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3명의 훈련생이 3개국으로 파송될 예정입니다.’

인턴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연 2회(2월, 8월) 열리는 훈련에 지원하여 현장과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훈련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연습, 부르심을 깨닫는 시간, 더 나아가 앞으로의 삶을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교에 관심이 있었지만 어떻게 첫발을 내딛어야 할지 몰랐던 분들,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 선교지를 경험하고 싶으신 분들 모두를 기다립니다.

가장 빛나는 지금! 한 발을 내딛는 용기와 순종의 걸음이 이 글을 보는 모든 청, 장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의: 박찬미 간사 010-5379-8683

● 이하엘(가명)



- 파송국가: A국
- 파송교회: 이천풍성한교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이사야 43:1)

A국은 이슬람 93.4% 기독교 0.01%입니다. 이들은 이슬람을 진리로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A국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를 알고 믿으며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 기도제목

1.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만 더 사랑하도록
2. 열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3. 선교사님과 하나 되어 사역에 온전히 동참할 수 있도록
4. 선교지 교회들이 복음 위에 건강하게 세워지고 복음이 편안하게 서도록
5. 선교지 청년들이 복음에 반응하고 거룩한 세대가 일어나도록

● 정은유(가명)



- 파송국가: I국
- 파송교회: 천안하늘비전교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태복음 11:28)

I국은 미전도종족 국가입니다. 종교개정금지법으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이 그곳에 역사해주셔서 그곳에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기도제목

1.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될 수 있도록
2.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이 심겨지도록
3. 선교사님 부부와 성도들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도록
4. 선교지 정부와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도록
5. 구르가온 한인교회가 선교적 교회가 되도록

● 노아(가명)



- 파송국가: 청주글로벌비전센터 (국내이주민선교센터)
- 파송교회: 한밭제일장로교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요한삼서 1:2)

청주글로벌비전센터는 러시아, 카작, 키르키즈, 우즈베크,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등 7개국 정도의 러시아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는 나라들의 사람들과 예배를 드리며 다양한 교육을 통해 선교하는 비전센터입니다. 청주에 많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국내 선교의 새로운 길과 선교후보생들에게 새로운 훈련과 헌신의 장이 될 것입니다.

■ 기도제목

1. 열방과 모든 민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2.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선교 현장이 되도록
3.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전하는 자, 예배자 되도록

FMB 인턴선교사 훈련을 마치고

● 이하엘 (6기 인턴선교사)

2주간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일은 혼자가 아닌 '함께' 동역해야 함을 배웠다. 혼자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나에게 평소 동역해야 하는 사역은 나를 힘들게 했었다. 그래서 이번 훈련에 들어갈 때 '하나님 제발 좋은 동기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동기들과 2주 훈련 동안 잘 연합할 수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다. 나를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에너지 넘치는 두 동기들을 예비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연합을 배우게 하셨다.

훈련 프로그램 중 처음 가보는 미션트립에 대한 걱정이 많았던 나는 김해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고 준비해 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6기 동기들과 하나로 연합하며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면서 동기들을 붙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했다. 정말 셋 중 하나라도 없었다면 많이 힘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을 느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일은 혼자 완성할 수 없고 서로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 나아갈 때 아름답게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훈련 기간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었다.

6기 인턴선교사 훈련 과정 속 나의 삶의 목적을 생각하고, 선교를 배워가며 주님에 대한 나의 첫사랑도 회복되었다. 돌아보니 내가 사역을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서'였다. 그러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사역하기보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리고 전도사로서 해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역할 때가 많았던 것 같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는 선교훈련을 통해 아침 묵상 시간과 십자가 복음이라는 강의를 듣게 하시며 철저히 내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을 갖게 하셨다. 2주간의 훈련 동안 하나님은 바리새인과 같은 나의 모습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셨고,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이 나의 목적임을 알게 하셨다. 선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걱정하던 내게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선교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만 유일하게 사랑하는 것임을 듣게 하셨다.

선교 훈련을 통해 막막했던 선교의 길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훈련을 참여하기 전에는 선교가 정말 막막했다. 시작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항상 선교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이런 막막함이 있었기에 선뜻 발걸음을 내딛지 못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훈련을 통해 선교사가 누구인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지 기초부터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실제적인 강의들을 통해 선교지에서 위기관리 방법과 예방을 잘 배운 것 같다. 2주간의 시간은 선교를 준비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 훈련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FMB 은퇴선교사 소개



| 명유정 (FMB 간사)

FMB는 매년 FMB선교사로서 은퇴(만65세 은퇴, MUT훈련을 수료할 경우 70세까지 정년 연장)하는 선교사 가정들을 위해 은퇴 감사예배를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FMB소속 선교사로서 달려 온 걸음들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하며, 동시에 FMB 소속으로서는 은퇴하지만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걸음들에 대한 축복의 마음을 담고 있다. 지난 11월 14일에 진행되었던 '2023년 FMB선교사 은퇴감사 예배'에는 총회 및 총회의 각 기관들에서 축하의 마음으로 방문하여 선물과 감사패를 전달해 주었고, FMB 각 지부들에서는 축하메시지를 전달해 왔으며 예배가 진행되었던 부산교회(김종성 담임목사)의 정성스러운 준비로 풍성한 감사예배가 진행되었다.

2023년 FMB은퇴 선교사

김학천, 박옥자(대만 / 1989년 11월 4일 파송)

김학천, 박옥자 선교사 가정은 1986년 대만에서 사역을 시작하였고 FMB 소속으로는 1989년 허입되어 대만에서 34년간 사역을 이어왔다. 현지에서 침례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하며 대만에서는 대형 교회 수준인 1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참



석하는 교회를 이끌어 왔다. 중화권의 부흥을 꿈꾸며 달려왔던 김선교사는 은퇴감사예배에서 “매일이 기적이었고, 매일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며 소감을 밝혔다.

신현우, 이창순(베트남 / 2004년 6월 1일 파송)

신현우, 이창순 선교사 가정은 2004년 파송되어서 신학교 사역을 하며 신학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성장시켜왔다. 또한 교회개척 사역을 통하여 베트남의 영혼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는데 힘써왔다. 신현우&이창순 선교사는 감사예배를 통하여 “새로 건축될 교회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날을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씨앗을 뿌렸을 때 은혜의 열매들을 맺게 하였고,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광야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며 감사의 소감을 전했다.



이병무, 김애경(키르기스스탄 / 2005년 6월 1일 파송)

이병무, 김애경 선교사 가정은 2005년 파송되어서 현지에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지금까지도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 사역일 정상 감사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병무 선교사는 영상편지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물질과 기도의 후원으로 지난 19년 동안 감사하게 사역을 이어왔습니다. FMB선교사로서 이렇게 은퇴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기도로 동참하겠습니다.”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지경 너머의 선교를 꿈꾸며

| 권순태 양미란 선교사(FMB/독일)

I.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독일로 왔었기에 처음 수 년 동안은 종종 아내와 함께 “여보 그런데 우리가 왜 독일에 있지”라는 말을 나누곤 했었다. 이곳에 오게 된 것도 계획하여 온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오게 되었고, 전에 마음을 조금이라도 품은 적도 없는 곳이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곳에 무슨 특별한 사역을 하러 온다는 생각보다 좀 더 전문을 넓히고 뭔가를 좀 더 배워야겠다는 거룩한 욕심으로 첫발 자국을 떤었던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있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보이면 주저할까봐 조금씩 조금씩 모이를 주어서 닭장안으로 닭을 들이듯이 저의 걸음을 증가시키시더니 급기야 25년의 세월을 지나오게 하셨다. “벌써”라는 탄성이 나오곤 한다.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결코 체계적인 어떤 선교전략이나 비전을 두고 달려온 것 같지도 않다. 그저 하나님께서 손에 주시는 대로 분주히 움직여온 것 같다. 굳이 전략이라는 말을 붙이자면 닥선전략(닥치는 대로 하는 선교전략)이다. 하지만 지난 세월을 돌아볼 때 그것은 하



나님의 섭리였고 은혜였음을 누구나가 고백하듯이 나의 고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까지 당신의 계획에 따라 저를 드라이브 걸어오셨다.

II.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하는 시대(The World from Off-line to On-line)에 다시 온라인을 오프라인으로 바꾸는 교회로(The Church from on-line to off-line)

오늘날 시대는 오프라인에서 점점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시대이다. 이러한 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주범(?)이 불과 15년 전에 우리 삶 속에 등장한 스마트폰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온라인에 연결되어 있기에 여전히 친교하고 교제속에 있다고 생각한다. 착각 아닌가! 문제는 인격적인 교제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2020년 전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코로나가 물리적으로 전 세계인을 고립시켰다. 그때 구원투수로 나선 것이 온라인이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는가? 아니다. 그러잖아도 스마트폰 온라인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우리를 더욱 더 고립시키고 말았다.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더욱 더 인격적인 접촉을 상실케 만들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는 온라인 세계를 오프라인 세



교회 외부 전경

계로 바꿀 필요가 있었다. 라이프찌히교회는 오프라인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다. 물리적인 교회공간이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 살 수 없는 우리가 인격적인 오프라인 믿음을 생성할 수 있는 지역교회(Local Church) 공동체가 되는데에는 그러한 물리적인 공간이 아주 유용했다.

사실 독일사회에서 디아스포라 교회 공동체가 건물을 갖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었다. 수많은 까다로운 조건을 다 만족하여야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인 필요 경비, 행정적인 허가, 실질적인 공간구조, 그리고 언제나 흠어질 수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구성원들 등은 다 넘어야 할 과제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한 감동과 일이 흘러가는 정황으로 1889년 세워진 문화재 건물을 구매케 하셨다. 그것은 우리에게 딱 맞는 공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2004년 교회건물과 주차장을 계약했고, 루터교교구청의 재정보증 아래 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을 빌릴 수 있었으며 마침내 2008년 5월 18일 첫 입당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

III. 라이프찌히 디아스포라 교회공동체를 통하여 본 디아스포라 선교의 특성과 의의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사역의 대상을 “제 3의 종족”이라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을 한국인이라고 하기에는 이미 그 현지의 문화와 삶에 익숙한 현지인이면서도 현지인이라고 하기에는 근본 한국인인 제 3의 영역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에 대한 목양적, 선교적 케어는 현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나 국내에서 사역하는 목회와는 그 특성과 접근방법을 달리 해야 한다. 여기서는 디아스포라 사역과 공동체가 품고 있는 10가지의 특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 1) 다양성-문화적 인종적 국가적 다양성이 있다. 심지어 한 가정 안에서 한국인과 체코인이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룰 때 아이가 습득해야 할 언어와 문화는 적어도 4가지이다. 한국인 엄마의 한국어, 체코인 아빠의 체코어, 삶의 터전인 독일어, 외국인으로서의 국제어인 영어이다. 따라서 다양성은 인정되어야 하는 현실이다.
- 2) 개별성-다양성이 있다는 말은 역설적이게도 개별성이 강조된다는 것이다. 큰 모자이크 그림을 이루는 각 조각들은 자기들의 개성이 있어야 한다. 개별성이 있을 때 다양성의 의미가 있다. K-pop, K-food, K-drama, K-culture 등과 같이 가장

한국적인 개성을 가진 것이 세계적인 것이 되듯이 한인디아스포 안에서 그 구성원의 개별성이 강하고 존중받아야 한다.

- 3) 통일성-오늘날 세계는 서로 섞이고 있다.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의 구분이 의미가 있는가? 이미 국내에서 해외선교를 할 수 있고 해외에서 국내처럼 한인 사역을 할 수 있다. 디아스포라 사역은 그 경계선을 허물어 목회와 선교의 구분선을 없앤다. 삶 자체가 목회요 선교가 된다.
- 4) 중심성-다양성과 개별성이 있기에 디아스포라 사역에 있어 그 중심을 잘 잡아주어야 한다. 자칫 산만하게 흠어진 조각들로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인디아스포라는 신앙적정체성, 인종적정체성, 민족적정체성, 정서적 정체성을 제공해 준다.
- 5) 연결성-디아스포라 안에서는 각 개성을 가진 조각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존재해



있기 때문에 네트워킹을 이루며 팀워크를 세운다. 누룩과 같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전략지에 배치되어 있듯이 연결된다.

- 6) 직접성-디아스포라 교회의 구성원들은 교회문을 열면 만나는 사람들이 곧바로 외국인들이다. 집문을 열고 직장문을 열면 곧바로 선교현장이 된다. 디아스포라의 삶의 현상이 그러하다. 따라서 삶 자체가 세계지향적인 선교이다.
- 7) 수용성-디아스포라 구성원들은 한국적 문화와 현지문화를 다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어디나 적응할 수 있는 수용성을 가진다. 또한 외로운 삶의 현장에서 소속의 근거가 마련되면 쉽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교제의 장을 열어간다. 같은 아시아인, 같은 고향, 같은 직업, 같은 연배 등등 무엇이든 묶을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서로 공감하고 교제의 관계가 형성된다.
- 8) 신속성-한국인들의 문화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빨리 빨리” 문화이다. 또한 사회 템포도 빨라서 본인 세대에 변화를 경험해 온 사람이고 결과를 맞본 사람들이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든 시작하고 결과를 맞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적극적인 사람들이다. 물론 과속과 과육의 경계를 해야하지만 그 열정은 디아스포라의 사역의 연료가 된다.
- 9) 풍부성-디아스포라 현장은 풍부한 자원과 가능성이 있다. 1세대는 퇴비와 같이 희생하지만 다음세대들은 풍부한 문화유산, 언어, 그리고 사회적 기반으로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러한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디아스포라사역의 과제이다.



- 10) 유동성-디아스포라라는 말 자체가 흩어졌다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디아스포라 사역과 교회는 정적이라기보다 늘 변화 속에 있는 유동적 유기체이다. 유학생이나 연구원, 주재원 그리고 음악활동하는 이들등등이 자신들의 회기와 계약이 만료되고 마무리되면 삶의 터전을 움직일 수 있기에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늘 유동적이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사역은 장기적 플랜(Long term)과 더불어 늘 단기적 타겟을 세워 토막 사역 플랜(Short term)도 병행해야 한다.

IV. 라이프찌히 교회의 구체적인 사역들

이러한 디아스포라 사역의 이해를 가지고 라이프찌히교회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교회 공간을 통해 크게 두가지 범주의 사역으로 활성화시키고 있다.

〈수평적인 사역(Horizontal Ministry)〉

첫번째는 수평적인 사역(Horizontal Ministry)이다. 이 사역의 중점은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그 구체적인 사역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 1) 학사관 사역-한국에서 나오는 유학생들이 교회건물 학사관으로 입주하여 들어올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 2) 유학생들의 안식과 비전의 공간-교회의 다양한 공간은 청년들의 친교, 음악연습, 입시를 위한 영상촬영 등등으로 사용된다. 육적인 필요가 영적인 필요로 전환된다.
- 3) 한국과 독일지역사회 콘택포인트-디아스포라 교회 공간은 한국을 소개하는 문화 공간이 되며 지역사회에 잘 알지 못했던 이들과도 접촉할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된다.
- 4) 선교를 위한 예비공간-라이프찌히 교회는 중국교회, 러시아교회, 통일기도모임, 북한선교 및 다양한 선교단체와 여러 타민족들에게 열려 있는 교회이다.
- 5) 종교개혁지 탐방의 베이스캠프-라이프찌히는 비텐베르크, 아이스레벤, 에어푸르



트, 아이제나흐 할레 등등 종교개혁지의 본고장으로 교회사의 역사를 통해 믿음의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다.

- 6) 재정적 우물 - 교회건물은 전형적인 독일건물로 교회용도 뿐 아니라 많은 세입자들이 머물기에 장기적으로 재정적 우물이 되어 디아스포라 선교와 구제와 필요한 경비의 재정적 우물이 된다.
- 7) 홈커밍의 센터 - 라이프찌히 교회는 한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간 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준다.
- 8) 한글학교 - 충분한 교회공간으로 인해 한인2세, 국제결혼한 가정의 언어문제, 그리고 한류바람을 타고 관심을 갖는 현지인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이 된다.
- 9) 한인교회들과의 협력 - 할레, 바이마르, 드레스덴, 베를린, 캄니츠 등등 주변교회들과 더불어 라이프찌히 교회공간을 연합으로 사용하여 연합어린이 여름성경학교 그

리고 유럽연합 청소년 수련회 등을 개최하여 연합적인 신앙성장을 도모한다.

- 10) 선교하는 교회 - 우크라이나와 같이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나라와 사람들을 돕고 협력하는 베이스가 된다.

〈수직적 사역(Vertical ministry)〉

두번째 개념의 사역은 수직적 사역(Vertical ministry)이다. 이 사역의 중점은 “다음세대”(Generation to Generation)이다. 인구절벽의 시대에 출산을 장려하며 교회안에서 다음 세대에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잘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사역이다.

- 1) 유럽연합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대부분 주일학교 운영이 쉽지 않다. 인력과 자료의 부족과 교사들이 언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고 지속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2010년부터 주변교회들과 함께 연합으로 여름성경학교를 라이프찌히교회 공간에서 한다. 그럴 때 재정절약, 자유로운 공간사용, 매년 같은 장소에서 하기에 익숙해서 좋다. 보통 5~8개 교회 50명정도가 2박 3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어린이들의 축제기간이다.
- 2) 유럽 침례교연합 청소년수련회 - 2011년부터 독일과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침례교 교회들이 함께 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신앙훈련의 장을 마련했다. 이 수련회는 보통 크리스마스와 신년 사이에 3박4일 혹은 4박 5일의 일정으로 열린다. 2018년부터 유럽침례교선교사총회에서 맡아 모든 것을 주관하기로 하여 라이프찌히교회는 함께 동참하고 협력한다.
- 3) 청년사역 - 라이프찌히 교회의 평균연령은 27세 정도이다. 청년들은 교회의 모든 부분에서 함께 하며 주일예배 이외에, 토요청년예배, 주일저녁식사친교, 스태프로 섬기기, 유럽코스타 섬기기 등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신앙성장을 꾀하고 있다.
- 4) 워킹홀리데이 사역자 - 교회성도들 뿐 아니라 앞으로 사역을 이어 나갈 동역자들을 위한 케어 역시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30세 이전의 젊은 전도사들이나 동역자들이 이곳에서 1년간 워킹홀리데이 사역을 통해 더 많이 배우고 경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후 사역에 올인하기를 바라며 독려하고 있다.



V. 마무리 글

하나님께서 미시는 대로 달려왔다.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흔적이었다. 그 모든 삶과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가지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과 사역현장의 일꾼들을 통해 십자가 복음을 나누는 것이다. 또한 이 은혜와 복음은 계속 지속되고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 부모와 우리 세대는 이듬해 돌아날 싹과 피어 오를 가지와 꽃, 그리고 풍성한 결실을 위해 썩어져 가는 퇴비가 되어야 한다. 라이프씨히의 사역은 그러한 미션을 꿈꾸고 달려간다.



2024년 하반기 기관별 사역 일정

침례교 해외선교회(FMB)

- 7월 - FMB MK 여름캠프
- 8월 - 인턴선교사 7기 훈련
- 9월 - 지부장 연례회의
- 10월 - 제 6회 FMB 선교포럼
 - 선교적 교회로 가는 8단계 세미나
 - 만만세 선교축제
- 11월 - 선교사 은퇴감사 예배
- 12월 - 장단기 선교사 시취
 - 국내체류 선교사 송년 모임

선교전략연구개발원(SRDC)

- 7월, 12월 - 현장사역 사례연구 발표회
- 9월 - 2024 SRDC 전략회의

세계선교훈련원(WMTC)

- 선교사 업그레이드 훈련(Missionary Up-grade Training)
 - MUT- Professional : 2024년 6월 18일 ~ 7월 19일(5주간)
 - MUT- Professional for Japan : 2024년 8월 5일 ~ 8월 16일
 - MUT-Senior : 2024년 10월 22일 ~ 11월 16일(4주간)
- 인투미션 선교 교육(in2mission)
 - 인투미션 웨비나_선교학 개론 : 2024년 8월 13일 ~ 10월 29일(12주간)
 - 인투미션 웨비나 : 2024년 10월 8일 ~ 11월 26일(8주간)
- 문의 : 침례교 해외선교회(02-2619-2202), 세계선교훈련원(042-828-3371)



in2mission

인투미션 선교학교

1. 인투미션 선교학교란?

인투미션(in2mission)은 지역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선교 학교'입니다. 각 교회가 선교를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여 선교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제적으로 선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전/현직 선교사 및 각계의 선교 전문가들의 다양한 강의를 통해 선교이론을 배우고, 생동감 넘치는 선교 현장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헌신된 선교 일꾼들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in2mission의 단어적 의미** 지역교회와 평신도들이 선교(mission)에 투입(into)되도록 동원하는 선교학교로서, '선교에 빠지다. 선교에 잡기다. 선교 속으로' 등의 뜻을 지니고 있다. 숫자 '2'는 지역교회와 선교라는 두 개념을 의미하며, 인투미션 선교학교가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2. 인투미션 진행안내

- 인투미션 : 지역교회를 방문하여 선교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돕는 기초 선교 교육
 - 기간 : 8~10주(대면 방식, 기간은 교회와 협의 후 결정)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독서 보고서 등)
- 인투미션 웨비나 :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기초 선교 이론 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8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온라인 강의 + 과제물(강의 연구문제, 보고서)
- 인투미션 웨비나 선교학 개론 : 보다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선교 이론교육(온라인)
 - 기간 : 매주 화요일, 12주
 - 대상 : 지역교회 성도, 신학생,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이현모 교수 전담 강의 + 강의 소감문
- 인투미션 선교위원 과정 : 선교위원 및 교회 내 선교 헌신자들을 위한 '선교 실무교육'
 - 기간 : 매주 화요일, 7주(대면, 또는 실시간 비대면 방식)
 - 대상 : 교회 선교위원, 교회 내 선교 헌신자, 사역자 등
 - 진행 : 강의 + 소그룹 활동

3. 수료 혜택

- 침례교 해외선교회(FMB)와 세계선교훈련원(WMTC) 공식 수료증 발부
 - 침례교 해외선교회 장단기 선교사 시취 시 우선순위 부여
 - 인턴선교사 훈련 자격 인정(2, 8월에 열리는 국내 타문화권 미션트립 및 전도 아웃리치 모두 참여 시 인턴선교사 최종자격 부여)
- 문의 : 세계선교훈련원(WMTC) Tel. 042-828-3371

